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일정

사회 : 장윤주 팀장(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시간	구분	내용
14:00~14:20	개회사	이제훈 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축사	박찬봉 사무총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영사	박성연 소장(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14:20~14:50	기조강연	한국 비영리 Index의 의의와 발전방향 이희길 사무관(통계개발원)
14:50~15:05		TEA TIME
15:05~16:00	주제발표1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Index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주제발표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권리지수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한창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0~16:30	토론	좌장 : 박성연(기부문화연구소 소장) 토론자 : 박란희(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이사) 김상욱(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현승(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2팀장)
16:30~16:45	질의응답	

목 차

- 009 ——— 기초강연
한국 비영리 Index의 의의와 발전방향
이희길 사무관(통계개발원)
- 029 ——— 주제발표1.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063 ——— 주제발표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05 ——— 주제발표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한창근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29 ——— 종합토론
좌장 **박성연** 소장(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토론 **박란희** 이사(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김상욱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현승 팀장(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2팀)
- 147 ——— 기관소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네트워크 소개

나눔지식 네트워크란?

'나눔지식 네트워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가 나눔 지식을 교류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조직한 네트워크입니다.

각 기관의 연구경험과 지식 교류를 통해 나눔지식의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비영리 관련 인덱스나 기초 데이터로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덱스나 기초 데이터의 생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5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는 나눔지식을 교류하고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지식 네트워크를 발족하였습니다. 연구자와 실무자가 함께 비영리의 중요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방향모색을 위해 매년 공동포럼을 열고 있으며 올해에는 “비영리 Index-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동포럼을 위해 ‘한국 비영리 Index의 의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강연을 맡아주신 이희길 사무관님과 발표를 맡아주신 송헌재 교수, 정익중 교수, 한창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비영리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종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허동수**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

한국 비영리 Index의 의의와 발전방향

이희길 사무관(통계개발원)



한국 비영리 지표의 의의와 발전방향

2017. 06. 14

통계개발원
이희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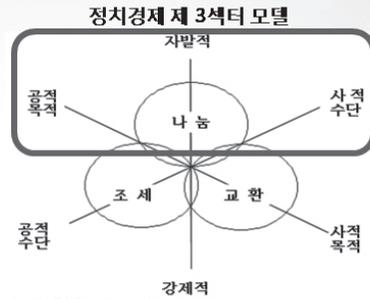
-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 II. 비영리 조직과 현황
- III. 비영리 지표 작성현황
- IV. 비영리 지표 개발 방안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1. 비영리 부문

▶ 정부, 시장과 함께 제 3섹터(비영리 부문)로 사회를 구성

▶ 제 3섹터: 자발적이며 시민사회의 도덕성 기반 공적 목적(공익)을 위해 사적 수단(행위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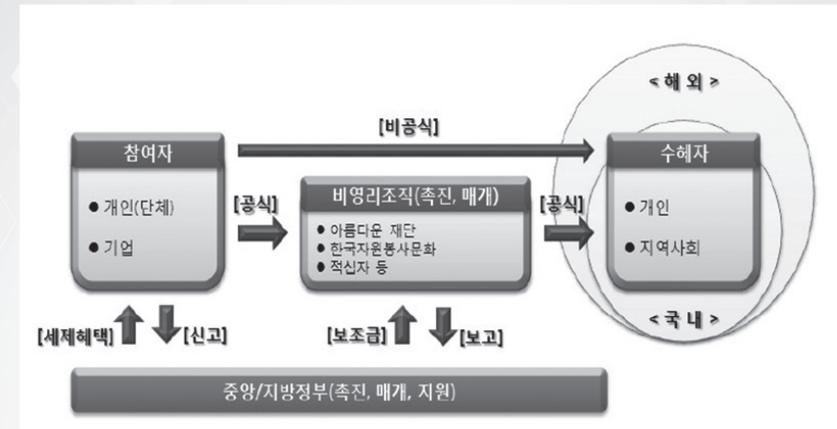


사회의 세 영역의 특성

영역	주체	목표	핵심 개념
정부	공적 행위자	공익	권력(power)
시장	사적 행위자	사익	부(wealth)
비영리	사적 행위자	공익	도덕성(morality)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1. 비영리 부문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1. 비영리 부문

- (배경)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실천방안으로 관심 부각
- (경제) 다양한 복지지출 요구에 따른 공적 자원의 한계 보완
- (사회)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social cohesion) 효과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2. 우리의 현실

▶ UN W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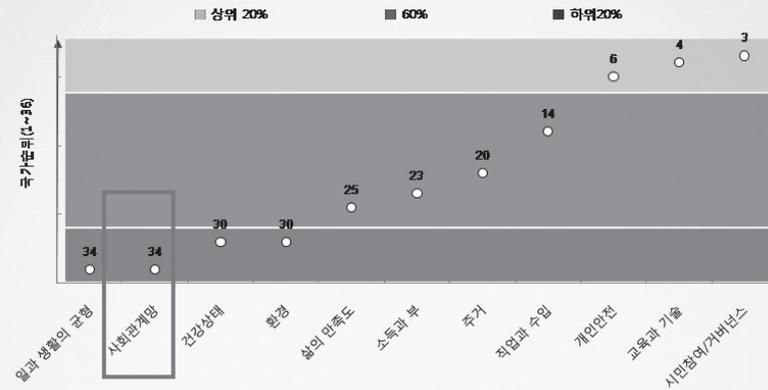
	삶에 대한 평가	사회적 지지	자율성	부패	관용	건강수명	1인당 GDP
노르웨이	7.66	0.94	0.95	0.42	0.06	72.5	8,071
캐나다	7.48	0.94	0.93	0.44	0.25	72.1	35,294
호주	7.35	0.96	0.94	0.36	0.30	72.9	34,571
코스타리카	7.26	0.90	0.91	0.80	0.02	67.4	10,440
아일랜드	7.08	0.97	0.90	0.60	0.34	71.4	5,902
미국	7.08	0.92	0.83	0.70	0.19	69.7	2,068
영국	6.88	0.95	0.89	0.45	0.34	71.6	2,797
프랑스	6.76	0.94	0.86	0.62	-0.14	72.7	9,571
덴마크	7.69	0.96	0.94	0.18	0.22	71.2	2,333
독일	6.67	0.94	0.89	0.68	0.05	73.1	34,056
한국	6.27	0.80	0.66	0.82	-0.06	69.2	6,789
(세계 순위)	(41위)	(94위)	(104위)	(80위)	(96위)	(27위)	(29위)
일본	6.06	0.91	0.78	0.73	-0.12	75.1	30,478
이탈리아	6.02	0.88	0.61	0.92	0.03	73.6	7,000
세계 전체	5.53	0.84	0.74	0.73	0.01	59.0	3,524
OECD	6.66	0.91	0.81	0.65	0.05	70.8	9,533

자료: UN. (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appendix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2. 우리의 현실

➤ OECD BLI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2. 우리의 현실

➤ 사회조사 - 자원봉사

자원봉사 참여율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원봉사 참여율(%)	16.3	24.9	42	36	44	30.6
조사시점(년)	2015	2015	2014/2015	2010	2013	2012
통계명	사회조사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Life Survey	Voluntary Work, Australia	GSS GVP	NZGSS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눔실태, 2015.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2. 우리의 현실

➤ World Giving Index 2015

국가	합계		낯선 타인 돕기		기부		자원봉사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Myanmar	1	66	47	55	1	92	1	50
United States of America	2	61	3	76	12	63	6	44
New Zealand	3	61	22	65	6	73	4	45
Canada	4	60	14	69	10	67	5	44
Australia	5	59	21	66	7	72	12	40
United Kingdom	6	57	25	63	4	75	28	32
Netherlands	7	56	41	59	5	73	18	36
Sri Lanka	8	56	33	60	16	59	2	48
Ireland	9	56	37	59	8	67	11	41
Malaysia	10	52	27	62	17	58	17	37
Republic of Korea	64	35	74	50	55	34	6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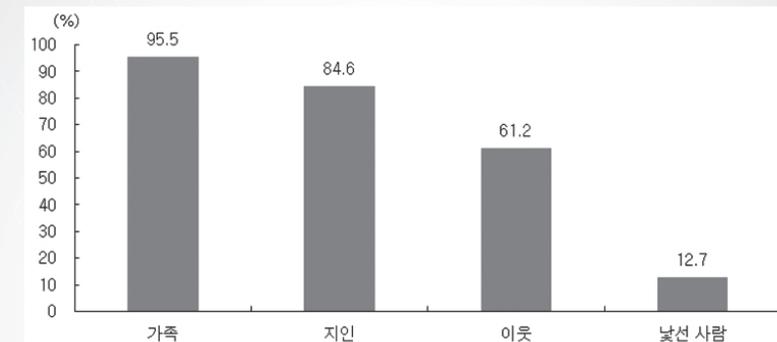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눔실태, 2015.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2. 우리의 현실

➤ 한국인의 신뢰구조

대상별 대인신뢰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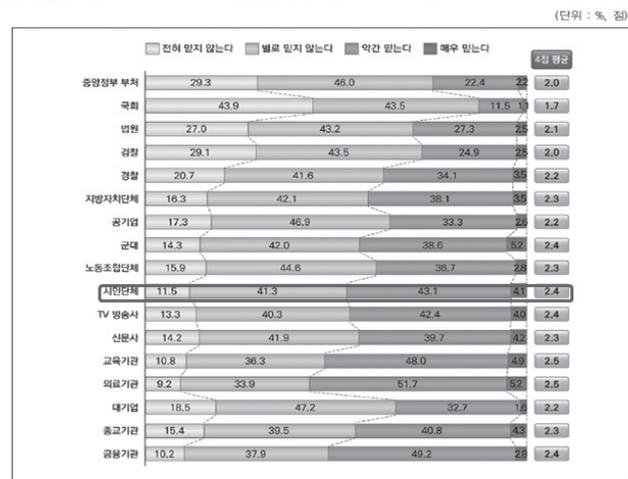


주: 설문(응답대상: 18~64세 인구) '귀하는 다음 집단(가족, 지인, 이웃, 낯선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4점 척도의 응답 중 '매우 신뢰한다' 또는 '약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2. 우리의 현실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II. 비영리 조직과 현황

1. 비영리 조직 : 정의

▶ 정의

-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는 결사

▶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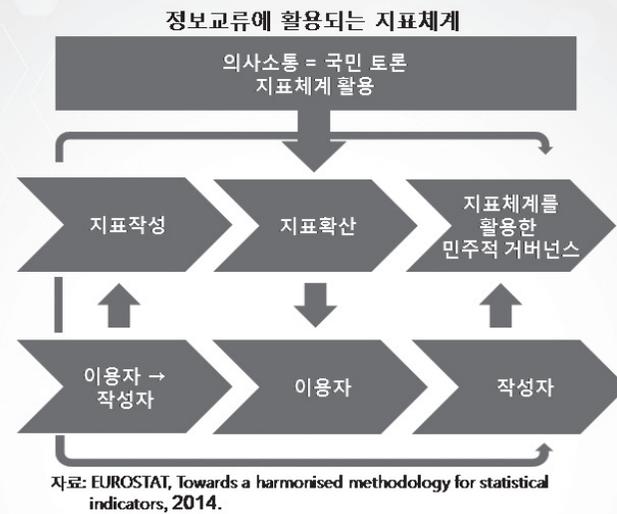
- UN(2003)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①조직체, ②이익무추구 및 이익무분배, ③정부와 별개, ④자치성, ⑤비강제성

I. 비영리 지표의 의의

3. 비영리 지표작성의 의의



II. 비영리 조직과 현황

1. 비영리 조직 : 분류

▶ 국제 분류

-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 (UN, 2003)

- ①문화/레크레이션, ②교육, ③건강, ④사회서비스, ⑤환경, ⑥개발/주거, ⑦법/옹호/정치, ⑧자선매개/봉사증진, ⑨국제, ⑩종교, ⑪경영-전문직조직/노조, ⑫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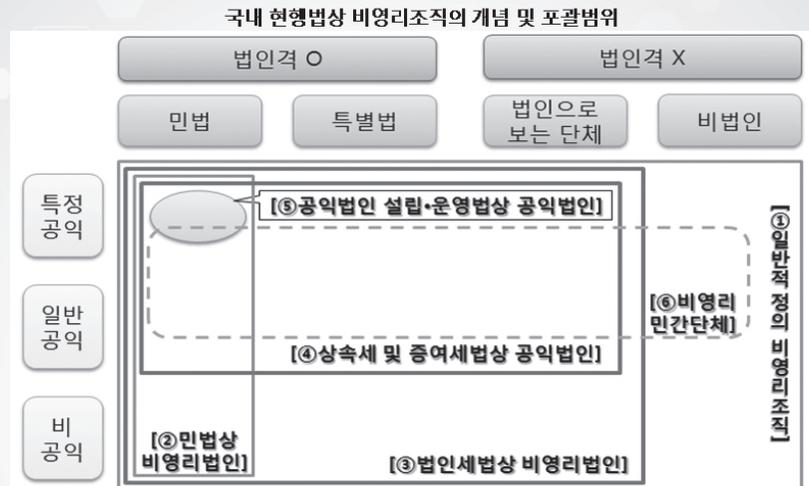
▶ 국내 분류

- 박태규(2006)

- ①문화 및 예술, ②교육연구, ③의료보건, ④사회서비스, ⑤시민단체(정치단체 포함), ⑥종교, ⑦산업 및 전문가단체(노동단체 포함), ⑧연고단체

II. 비영리 조직과 현황

1. 비영리 조직 : 법적 분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KAI개원기념세미나 발표자료)」, 2013에서 수정.

II. 비영리 조직과 현황

1. 비영리 조직 : 공익법인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 수: 2009-2014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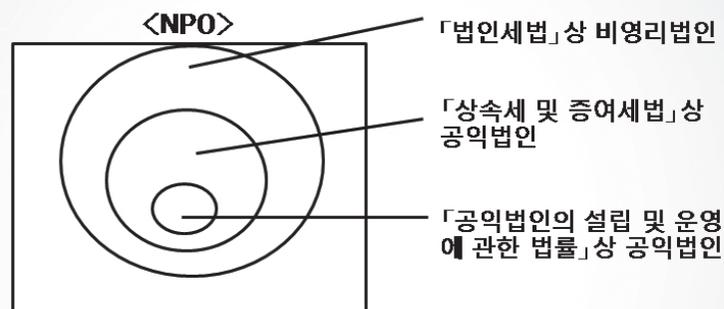
구분	합계	공익사업 유형						
		종교 보급	사회 복지	교육 사업	학술· 장학	예술 문화	의료 목적	기타
2009	28,905	17,958	2,830	1,749	3,163	673	610	1,922
2010	29,132	17,863	2,895	1,735	3,134	773	671	2,061
2011	29,170	17,753	3,028	1,681	3,229	658	700	2,121
2012	29,509	17,708	3,093	1,702	3,394	743	759	2,110
2013	29,849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2014	29,732	17,542	3,119	1,697	3,499	786	813	2,27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눔실태, 2015.

II. 비영리 조직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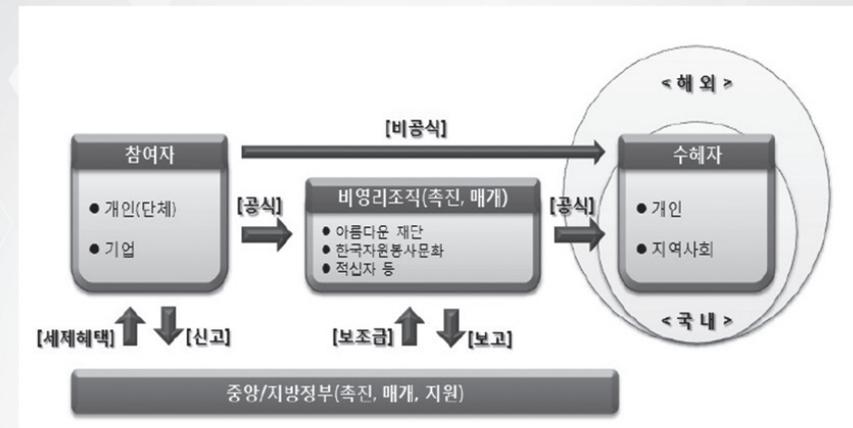
1. 비영리 조직 : 법적 분류

-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포괄범위 관계
-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광범위함



III.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1. 통계작성방법 : Framework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1. 통계작성방법 : 통계작성 현황(기부)

기부관련 통계 요약

통계명	작성현황			
	작성기관	유형	승인	내용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보고	승인	(개인) 기부금특별공제액 (법인) 기부금신고액
사회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기부율, 기부횟수/액수, 정기기부, 기부/미참여 이유, 인지경로, 기부희망분야, 향후 기부 의사 등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종교,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지역사회조사	광역시도	조사	승인	(개인) 기부액, 횟수 등
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승인	(개인) 기부 참여 여부, 기부처, 기부액, 동기, 기부 계획
Giving Korea	아름다운 재단	조사	미승인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및 조직, 사회공헌활동 실적(활동여부, 기부금), 사회공헌활동 성과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한국자원봉사문화	조사	미승인	(개인) 기부율, 기부자 특성, 기부액, 정기성 및 횟수, 기부참여경로 등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미승인	(기업) 기부율, 기부액, 기부분야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	한국NPO공동회의	보고	미승인	(매개) 241개 NPO 조직 현황, 사업영역, 예결산, 모금액, 후원자수, 직원/자원봉사자 현황
개발복지NPO	한국NPO공동회의	조사	미승인	(매개) NPO 모금액, 모금액처, 지출처(국내, 해외)
식품기부 실적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보고	미승인	(개인) 기부자, 기부식품, 이용자 현황 등

주: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함.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1. 통계작성방법 : 평가

▶ 기부자 중심 통계작성의 한계

- 현재 미흡한 NPO 기반 기부통계 작성의 필요성 제기
* NPO는 기부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고, 기부자와 수혜자를 매개하는 중요한 정보원
- NPO 기반 기부통계 작성은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필요
- 기부뿐만 아니라 NPO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의 중요성 인식
- 현재 국내의 NPO 정보공개제도의 통계작성의 활용성 낮음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1. 통계작성방법 : 통계작성현황(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관련 통계 요약

통계명	작성현황			
	작성기관	자료수집	승인	내용
자원봉사센터현황	행정자치부	보고	미승인	(개인) (성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고	승인	(개인) 자원봉사자 수, 활동횟수/시간/분야 등
사회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참여율, 참여횟수 및 평균시간, 정기봉사, 인지경로, 향후 활동의사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조사	승인	(개인) 활동 분야별 평균 참여시간
지역사회조사	광역시도	조사	승인	(개인) 자원봉사자 수, 횟수 등
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승인	(개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횟수
Giving Korea	아름다운 재단	조사	미승인	(개인) 활동처별 참여율 및 참여시간, 정기참여율, 인지경로, 미참여이유 등 (기업) 참여율, 활동영역, 평균시간 등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한국자원봉사문화	조사	미승인	(개인) 참여율, 활동영역, 횟수, 평균시간, 주요내용, 비공식도움 등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미승인	(기업) 임직원 활동건수, 시간 및 참여율 등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1. 통계작성방법 : 평가

▶ 비영리단체 '정보공개제도' 활용성 낮음

- 관련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통계생산 활용에는 한계
* (한계점) 정보공개대상 단체 제한, 기관별 차이로 표준화된 공개서식 부재 및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통계생산에 활용되지 못함

※ 정보공개제도 시행 관련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 특별법 및 소득/법인세법 등 :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제도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2. 해외의 작성현황

해외 주요국 사례비교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근거 법	501(c)(3) 단체	자선단체(빈곤 구제, 교육 증진, 종교 증진, 지역 사회이익 증진)	자선단체(빈곤 구제, 교육 증진, 종교 증진, 건강/생명구호 증진 등 14개 항목)	자선단체(빈곤 구제, 교육 증진, 종교 증진, 지역 사회이익 증진)
총괄기관	국세청	국세청	자선단체위원회	자선단체위원회
정보 공개대상	501(c)(3) 단체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권, 문학, 교육, 국내/국제 아마추어 스포츠진흥, 아동/동물 학대 방지)	자선단체(빈곤 구제, 교육 증진, 종교 증진, 지역 사회이익 증진)	자선단체(빈곤 구제, 교육 증진, 종교 증진, 건강/생명구호 증진 등 14개 항목)	자선단체(빈곤 구제, 교육 증진, 종교 증진, 지역 사회이익 증진)
정보 공개양식	Form 990-N, EZ, PF, Form 990	Form TF 725, Form T3010-1	Annual Return Part A, B, C	Form 4
DB구축/통계 작성	국세청, GS, NCCS, FC	국세청	자선단체위원회, GS	자선단체위원회

자료: NPO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통계 작성방안, 통계개발원, 2012
 주: 1) 세법 501(c)(3)에 해당하는 단체는 공공자선단체와 민간재단을 의미한다.
 2) 각각 순서대로 가이드스타, 자선통계센터, 재단센터를 나타낸다.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2. 해외의 작성현황

▶ 영국

- 별도의 '자선위원회'에서 자선단체업무 총괄
- *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06년) : 자선단체 등록·관리하는 의회산하 별도기관으로 매년 단체로부터 회계보고서(Annual Report)

제출 받고 공개함

※ 근거법: Charities Act(2006)

- (목적) 자발적부문의 활성화 위해 수상 전략실(strategy unit) 별의로 "Charities and Not-for-Profits a Modern Legal Framework(자선 및 비영리단체: 현대적 법적 체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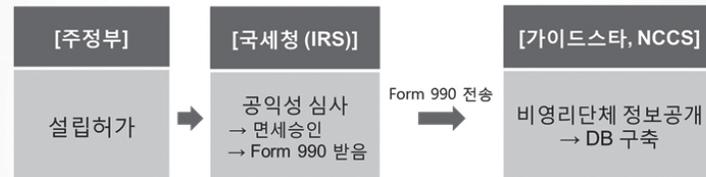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2. 해외의 작성현황

▶ 미국

- '국세청'이 공익성심사 통해 비영리단체에 면세자격 부여하고 매년 단체로부터 회계보고서(Form 990) 제출 받음
- 민간기관인 가이드스타와 NCCS(국가자선통계센터)에서 공개하고 DB구축 및 관련 분석자료 작성

미국 정보공개제도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2. 해외의 작성현황 : NCVO- UK Civil Society Almanac

영목 (Contents)	세부내용 (Details)
시민사회영역(Civil Sector)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What is Civil Society?) 수익과 지출 (Income & Spending) 자산 (Assets) 수급권자 (Beneficiaries) 고용 (Workforce) 자료 (Database) 방법론 (Methodology)
영역개요 (Sector Overview)	범위의 규모 (size & scope) 활동지역 (Geography)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자원봉사 (Volunteers)	자원봉사 참여율과 개요 (Volunteering rates & Overview) 자원봉사 특징 (Volunteer Profiles)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 Activities) 자원봉사 동기 및 장애 (Motivators and Barriers to Volunteering) 자원봉사 시설 (Volunteer Infrastructure)
수익 (Income)	재정 개요 (Financial Overview) 수익 출처 (Income Source) 개인별 수익 (Income from Individual) 정부 수익 (Income from Government)
일 (Work)	고용 (Workforce)
지출 (Spending)	지출 (Spending)
분야별 개요 (Sector Overview)	모금 (Fundraising)
자산 (Assets)	수급권자 (Beneficiaries)
Almanac 소개 (About Almanac)	자산과 적립금 (Assets and Reserves) 부채 및 대출 (Liabilities and Loans) 투자 (Investments)
부록 (Appendices)	방법론 (Methodology) 트렌드 자료 변화추이 (Changes to Trend Data) 범위 데이터 (Scope Data) 지출 데이터 (Spending Data) 자산 데이터 (Assets Data) 수익 데이터 (Income Data)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2. 해외의 작성현황 : NCCS- The Nonprofit Almanac

목차구성

서문(Foreword)

1. 비영리 부문, 국민경제에서 위상(The Nonprofit Sector and Its Place in the National Economy)
2. 임금과 고용동향(Wage and Employment Trends)
3. 사적 영역의 기부와 자원봉사 동향(Trends in Private Giving and Volunteering)
4. 재정동향(Financial Trends)
5. 공적 자선의 규모, 범위, 재정(The Size, Scope, and Finances of Public Charities)

조직 분류(Classification of Organizations)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3. 국내의 작성현황

나. NPO 공동회의

- 활동 및 비영리 분야를 연구하고 전망하며 NPO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화를 미션으로 2009년에 창립
- 한국NPO공동회의는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2011 한국 개발복지 NPO 총람」을 발간
 - 개발복지 NPO에 대한 이해 : 연구의 의의, 개발복지 NPO, 한국의 개발복지 NPO의 발전과정
 - 조사결과 분석 : 연구개요, 조사 기관의 특성, 조직, 재정, 사업, 사업 평가 및 해결해야 할 과제
 - 결론 및 제언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3. 국내의 작성현황

가. 가이드 스타

- 한국가이드스타는 「2015 한국 공익법인 백서」를 출간
- 2017년에 그 결과를 담은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발간
 - 공익법인 총량분석 : 공익법인 활동 현황,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세부 현황, 공익법인 재무 현황, 공익법인 비재무 현황
 - 개별 공익법인 비교 분석 : 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 세부 항목별 순위, 수익사업 세부 항목별 순위, 자산 보유 세부 항목별 순위

Ⅲ. 비영리 지표 작성 현황

3. 국내의 작성현황

다. 아름다운 재단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 연구소임
- '기빙인덱스'는 국내 기부실태 통계자료로, 기부 관련 현황 및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
- 2006년부터 「기빙코리아」를 발간,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빙코리아 로데이터(raw data)를 제공
-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2012), 국내 공익법인 대상 서베이 실시(2017)

IV. 비영리 지표 개발 방안

1. 작성방안

공익법인 정보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개요	1. (관리) 국세청 2. (대상) 상중세법상 공익법인 중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단, 종교법인 제외) 3. (운영) 공익법인이 직접 매년 공시시스템 등록(09년 시행) - 결산서류,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 등 총 4종
한계	1. 공시대상 공익법인 범위 제한 - 5,850건 등록('11년 10월) ※ 2,732개(『국세통계연보』(2014)) 2. 공시자료 활용성 낮음 - 공시내용 정확성 및 충실성 검토미흡 - 공시시스템상 단순열람만 기능 * 국세청장이 지정된 기관은 자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 상정됨

IV. 비영리 지표 개발 방안

2. 추진방법

- 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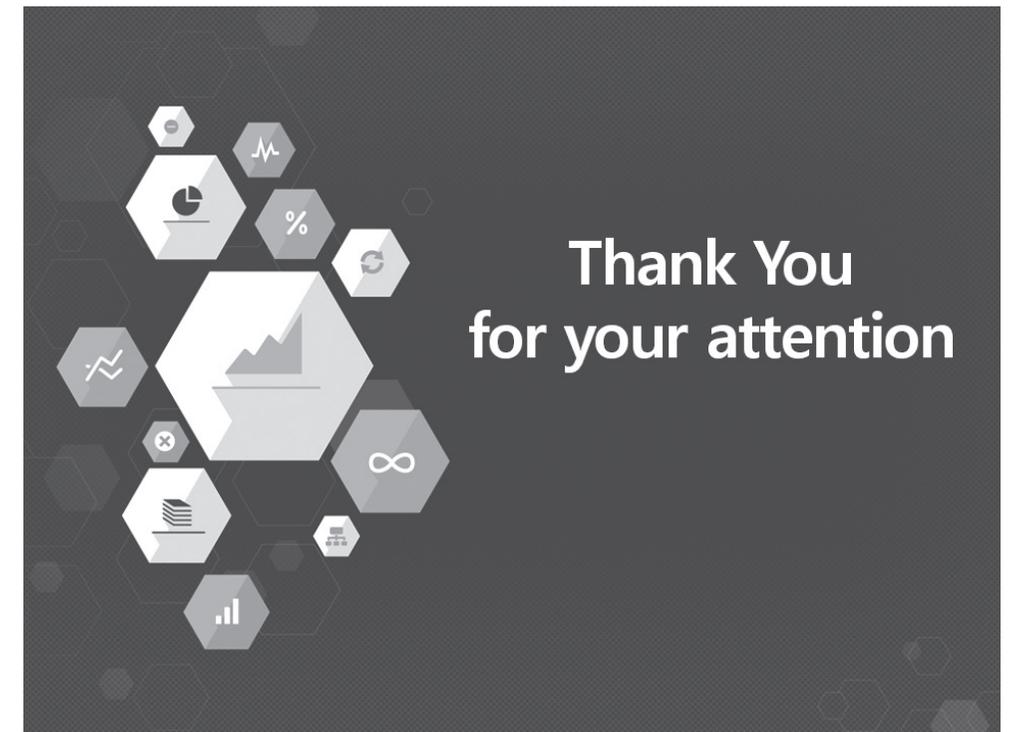
	기관/단체	관련 업무
기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공익법인 자료공시
	통계청	사회조사(나눔 관련 항목)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조사)
	한국은행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학계	비영리학회	비영리관련 연구
단체	아름다운재단	NPO 실태조사
	NPO 공동회의	NPO 백서 작성
	한국 가이드스타	공익법인 공시자료 활용 보고서 작성

IV. 비영리 지표 개발 방안

1. 작성방안

➢ 공익법인 정보공시를 이용한 지표개발·활용

-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공감대 형성 및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 NPO 자료 개발 및 추진방안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1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¹⁾

I. 들어가며

올해는 Giving Korea가 시작된 지 16년째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의 기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에 시작된 Giving Korea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Giving Korea는 2001년부터는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를 격년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해왔다. 매 짝수년도에는 전년도 개인 기부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홀수년도에는 전년도 기업 기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2016년에는 2015년도 개인 기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Giving Korea의 역사가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민간 기부현황과 추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다보니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연구자들의 욕심이 반영된 결과 2014년 개인 기부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Giving Korea가 처음 시작된 2000년도의 설문지와 비교해보니 질문의 양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조사범위는 늘어났지만 설문조사의 전체 표본수는 1,000여 명으로 유지되다보니 질문에 따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6 Giving Korea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수를 2,5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설문항목의 수는 줄이는 방향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존의 설문내용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기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질문내용을 개발하여 추가함으로써 2016 Giving Korea만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전체 조사비용은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 방식을 대면 면접조사에서 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하였다.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만나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응답자의 응답시간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면접조사에 비하여, 전화 설문조사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길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응답자가 질문을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양이 많으면 쉽게 피로하여 더 이상의 응답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개편된 Giving Korea 설문은 최대한

1) 본 원고는 송현재(2016)의 'Giving Korea 2016 - 개인기부 실태조사 결과분석'과 그 후속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수정함.

간결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사의 이러한 단점이 반영되어 응답자에게 생소하거나 대답하기에 민감한 일부 문항의 경우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면접조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번 2016 Giving Korea의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항목에 따라 모름/무응답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의 비율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 설문 항목의 경우 이를 포함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함의도 함께 토론했다.

이렇듯 Giving Korea가 16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 과연 Giving Korea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까? 지난 번 2014 Giving Korea까지는 전체 표본이 1,000여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 혹자는 아무리 표본설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000여명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기부현황을 올바르게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민간 기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기부 행위를 조사한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Giving Korea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국세청의 기부금공제 현황이 오래전부터 공식되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납세자 개인별 미시자료는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기부금 공제금액은 세법에서 공제대상으로 인정된 기부금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직접비교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조사하여 구축하고 있는 재정패널 자료에서도 민간 기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5,000여 가구를 조사하는 재정패널 자료는 표본의 전국대표성 측면에서 Giving Korea보다 우수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조사하는 Giving Korea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재정패널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참여율이나 평균 기부금액수를 추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가구 단위의 기부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개인 기부 총량을 추정할 경우에는 Giving Korea 자료를 사용한 추정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11년 처음으로 전국의 38,0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의 기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²⁾. 사회조사는 Giving Korea와 마찬가지로 격년으로 기부금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2011년, 2013년, 2015년의 개인 기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³⁾. 따라서 3개년도 사회조사의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 수준은 Giving Korea 자료와 상호 검증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2016 Giving Korea 자료 구축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주요 결과를 요약

2)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내신적인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몇 회의 후원(기부)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었다. 그렇지만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사와 그밖에 기부관련 다양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기부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는 2011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회조사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사회조사의 경우 2014. 5. 14 ~ 2015. 5. 13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이므로 조사년도 기준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 행위를 조사하는 Giving Korea와 조사기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한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결과를 토론함으로써 개인 기부에 대한 독자들의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그동안 축적된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 기부의 추세를 살펴보고 민간의 개인 기부를 조사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Giving Korea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연구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별하여 차례로 설명하였다.

II. 2016 Giving Korea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 대상 및 조사 설계

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실태조사는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일에 걸쳐 이루어졌다⁴⁾. 2016년 1월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에 비례하여 표본을 할당하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모두를 활용한 전화설문을 진행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총 2,50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표본에는 유무선 전화의 접촉 확률을 보정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표본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표본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표 1>은 이렇게 표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표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수
연령	49.49	17.50	19	95	2,500
교육연수	12.73	3.99	4	18	2,448
가구원수	3.02	1.30	1	10	2,458
수도권거주	49.28%	-	-	-	2,500
여성	50.44%	-	-	-	2,500
기혼	64.78%	-	-	-	2,476

주: 원래 설문지의 문항은 응답자의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하부터 대학원재학이상까지 범주형으로 물어보았으나 이 표에서는 이를 학력수준별로 필요한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보고하였다.

4) 2001년, 2002년, 2004년 Giving Korea에서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006년 Giving Korea부터는 설문조사 대상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2016 Giving Korea에서는 응답자에게 제일 먼저 '기부'란 직접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작년 한 해 1년 동안 기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설문을 시작하였다. 단, 기관에 기부한 경험의 유무만을 응답하게 하였으며 경조사비라든가 종교적 현금 및 보시의 경우 기부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하였다⁵⁾. 이후 설문의 구조는 기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기부자"로 분류하고, 기부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비기부자"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상이한 내용을 물어 보고, 다음으로 기부자와 비기부자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 기부 참여율 및 기부금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45.61%로 나타났다⁶⁾. 이로부터 위에서 정의된 기부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2015년 기부 참여율은 45.61%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기부자들에게는 작년에 어느 분야에 얼마나 기부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단, 기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현금 기부만을 물어보았다⁷⁾. 여러 분야에 기부했던 경우 분야별로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기부 분야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기부자들의 58%가 국내자선 분야에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해외구호 분야 22%, NGO 분야 10%의 순으로 기부 경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부자들의 관심이 국내 불우이웃을 돕는 데 가장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 기부자들의 기부 분야별 기부 참여율

(단위 : %)

	국내자선	해외구호	교육	의료	문화예술	NGO	지역사회	기타
참여율	58.04 (1.58)	21.60 (1.33)	4.62 (0.70)	3.05 (0.55)	0.40 (0.19)	10.08 (0.99)	7.48 (0.84)	4.37 (0.65)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는 표준오차임.

해당 분야에 기부한 사람들의 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교육 분야의 평균 기부금액이 21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NGO 152만원, 지역사회 47만원,

5) 이렇게 정의된 기부의 개념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정의한 기부의 개념과 동일하다.
6) 이는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된 값이다. 총 2,500명의 표본 가운데 실제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1,157명으로 표본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부 참여율은 46.28%로 나타난다.
7) 현물 기부 또한 기부 행위 관점에서 현금 기부와 그 중요성에 차이를 둘 수 없으나 기부자들이 기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물 기부의 금전적 가치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참고로 전체 기부자 표본에서 현물 기부에만 참여했던 기부자의 비율은 2.44% 수준을, 현물 기부와 현금 기부를 함께 했던 기부자의 비율은 24.69%로 나타났다.

국내자선 28원의 순으로 나타났다⁸⁾.

그렇지만 기부의 경험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 3〉의 금액이 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 분야와 지역사회 분야의 경우 표본수도 많지 않고 기부자의 10% 이상이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오차와 편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3〉 기부자들의 기부 분야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 만원, 명, %)

	국내자선	해외구호	교육	의료	문화예술	NGO	지역사회	기타
기부금액	28.24 (2.15)	29.78 (2.73)	215.75 (152.13)	26.18 (11.58)	22.72 (9.95)	151.73 (122.62)	46.70 (11.03)	37.54 (11.17)
기부자수	662	246	53	35	5	115	85	50
모름/무응답 비율	7.02	6.05	15.65	10.46	0.00	3.42	12.53	13.36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는 표준오차임.
3. 모름/무응답 비율은 두 번째 행에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 가운데 기부금액을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들의 비율임.

기부자들의 기부 분야별 기부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기부금액을 구하면 다음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기부자들에 한정할 경우 평균 기부금액은 57만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간값은 13만원으로 나타나 평균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체 표본에 1억원 이상 기부했다고 응답한 고액 기부자가 2명이 포함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2명의 고액기부자가 전체 기부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0.24%에 이른다.

〈표4〉 총 기부금액 기초통계

(단위 : 만원,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표본	56.76	14.89	12.5	1,055
전체 표본	24.38	6.42	0.00	2,415

주: 1. 모름/무응답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제외하였음.
2.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8) 교육 분야와 NGO 분야의 평균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1억원 이상 기부했다는 응답자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고액 기부자 한 명은 교육 분야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한 명은 NGO 분야에 1억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응답하였다. 참고로 이들은 가구 소득과 가구 자산도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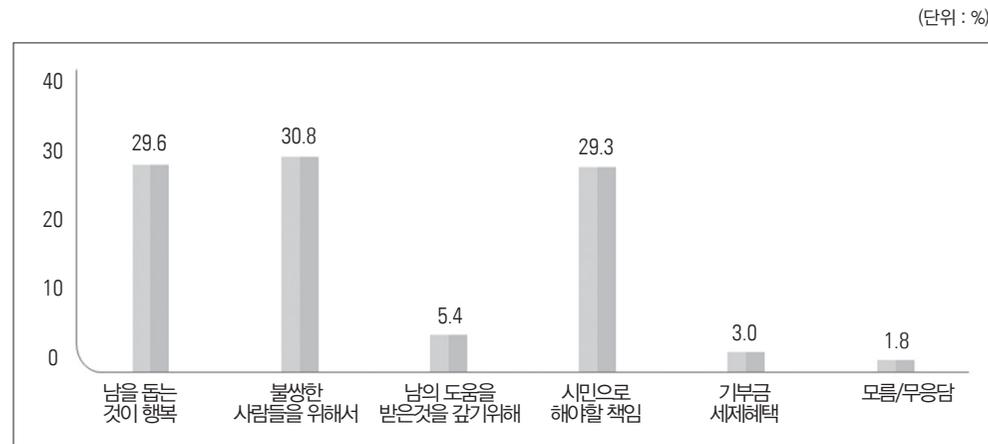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에 대한 추정치로서 과연 <표 4>의 평균값과 중간값 가운데 어느 통계치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에 더욱 관심이 많다면 이에 대한 추정치로 중간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2명의 고액기부자를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고 이들을 제외한 평균값(37.3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간값은 기부금액 전체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1억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식은 이상치 기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각의 통계량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기부금액의 분포를 추정하고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3. 기부자 그룹 주요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 별도로 기부자들에게는 기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기부의 결정방식 등을 물어보았다. 제일 먼저 기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기부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29.3%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남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 혹은 기부금의 세제혜택이 기부의 주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 둘을 합하여도 10%가 되지 않았다.

[그림 1]은 기부의 중요 기제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림의 결과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의식을 고취

<그림 1> 기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9)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기부 총액을 추정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비기부자를 포함하여 전체표본의 평균값에 표본추출 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의 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단, 표본오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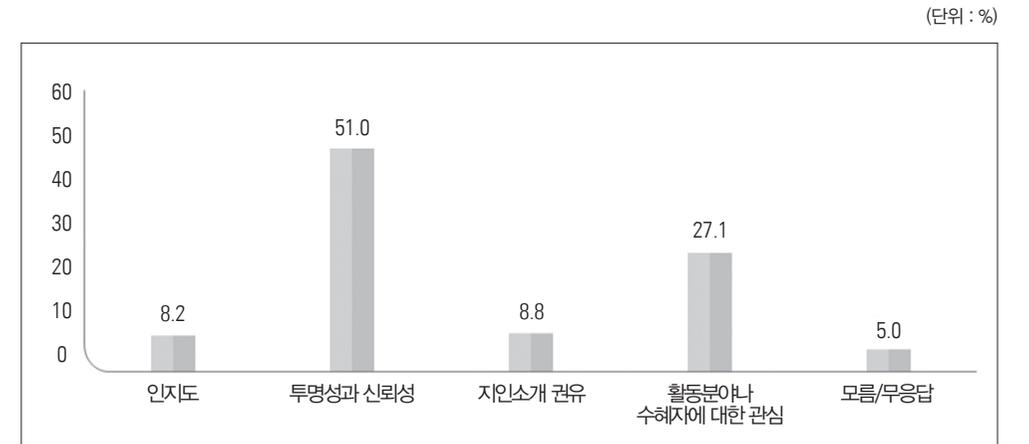
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부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기회를 가지게 되면 기부에 대한 선호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과반수를 넘는 51%를 차지하였다. 기부단체의 활동분야나 주요 수혜자에 대한 관심은 27%를, 지인의 소개와 권유 및 기부단체의 인지도는 각각 9%와 8%에 머물러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택할 때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둔다고 응답한 것은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즉, 기부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자의 우려가 반영되어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기부단체를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기부자들이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부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기부단체가 먼저 기부자들에게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림 2>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요건



Giving Korea 2016에서는 처음으로 기부자의 기부결정 과정에서 기부에 관한 주된 결정을 주로 누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기부자의 74%는 본인 혼자 결정한다고 응답하여 개인의 선호가 기부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 여부에 따라 분석해보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 본인 혼자

결정하는 비율이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경우와 비교하여 20% 이상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차지하여 부부가구의 경우 기부의 결정 과정을 별도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⁹⁾.

〈표5〉 기부에 관한 주된 결정을 상의하는 사람

(단위: %)

	미혼	결혼
본인 혼자 결정	89.13	67.90
배우자	0.72	28.98
자녀	1.45	1.04
부모	3.99	0.00
가족 이외 지인	3.62	1.15
기타	1.09	0.23
모름/무응답	-	0.69
합계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4. 비기부자 그룹 주요 조사 결과

비기부자들에게는 별도로 작년 한 해 동안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일생 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 유무 및 본인은 기부를 하지 않았지만 가구 내에 기부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비기부자들 가운데에서 64%는 일생 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과거 기부를 했던 경험이 본인의 기부에 대한 현재의 선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6〉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부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기부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기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기부단체와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9) 부부가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선호하는 기부 분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collective model을 적용하면 각각의 배우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따라 가구의 기부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송현재(2014)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구의 기부금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금혜택이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기부금을 납부할 유인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부에 참여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였거나, 적절한 기부단체를 찾아 원하는 기부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현재 기부를 망설이는 경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더 자세히 분석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표 6〉을 기부단체들에게 과거의 운영방식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는 결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표6〉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기부 유경험	기부 무경험
기부에 관심이 없음	13.55	12.01
경제적 여력이 없음	51.12	63.77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음	20.85	11.39
기부단체/기부방법을 모름	10.25	7.66
국가의 세금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함	1.88	2.07
모름/무응답	2.36	3.11
합계	100	100

주: 1. 일생 동안 기부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모름/무응답'한 11명을 제외하였음.
2.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본인은 2015년에 기부를 하지 않았지만 가구의 다른 가족은 기부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7〉은 일생 동안의 기부 경험 유무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보여준다. 기부 유경험자들의 가족이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기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가족이 기부에 참여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표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 기부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존재가 본인의 기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25~30%에 달하는 점은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둔다. 기부자들 사이에서 기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비율이 70% 이상 차지한 것처럼 비기부자들 또한 기부를 개인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타가구원의 기부에 관한 결정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면에 비기부자들이 기부 행위 자체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어서 기부를 하고 싶은 다른 가구원들이 비기부자 모르게 기부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지 모르나,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기부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찾는 데 활용될 여지는 있다고 여겨진다.

〈표7〉 2015년에 기부에 참여한 타 가구원 유무

(단위: %)

	기부 유경험	기부 무경험
작년에 기부를 한 가구원이 있음	25.09	8.90
작년에 기부를 한 가구원이 없음	45.58	65.84
모름/무응답	29.33	25.26
합계	100	100

주: 1. 일생 동안 기부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모름/무응답'한 11명을 제외하였음.
2.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5. 2016 기부 계획

과연 2016년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계획은 어떻게 될까? 2016 Giving Korea 조사 시점이 4월말~5월초이었음을 감안하여 조사 시점 현재까지의 기부를 포함하여 2016년 12월말까지의 기부 계획을 조사하였다. 단, 물품을 제외한 금전 기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았다. 〈표 7〉은 기부자 그룹과 비기부자 그룹을 구분하여 2016년 기부 계획을 정리하였다. 작년에 기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올해의 기부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8〉 2016년 기부 계획

(단위: %)

	기부자	비기부자
기부 계획 있음	79.73	14.66
기부 계획 없음	16.61	79.95
모름/무응답	3.66	5.39
합계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7〉에서 주목할 사실은 기부자 중에서도 17%는 올해 기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기부자의 15%는 올해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표 9〉를 살펴보면 2015년 기부금액수가 클수록 올해도 기부를 계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기부에 대한 계획을 밝힌 사람들이 아예 이 질

문에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사람들보다는 작년 기부금액수가 약간 높게 나타난 점은 기부자들에게 기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약하게나마 시사한다.

〈표9〉 기부 계획 유무에 따른 기부자 그룹의 2015년 기부금 통계

(단위: 만원,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2016 기부 계획 있음	65.27	3.62	20.00	909
2016 기부 계획 없음	19.26	3.60	5.00	189
모름/무응답	13.62	4.38	3.00	42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10〉에서는 비기부자들을 2016년 기부 계획 여부에 따라 세 그룹(A, B, C)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작년에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올해 기부할 계획 있다고 응답한 A 그룹에서 작년에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B 그룹과 C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부단체와 기부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은 A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즉, 2015년 비기부자들 가운데 2016년 기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경우 기부 계획이 실제로 기부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표10〉 기부 계획 유무에 따른 2015년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2016년 기부 계획 있음(A)	2016년 기부 계획 없음(B)	모름/무응답(C)
기부에 관심이 없음	16.30	12.70	11.25
경제적 여력이 없음	35.33	59.68	48.75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음	23.37	15.85	23.75
기부단체/기부방법을 모름	21.74	7.23	7.50
국가의 세금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함	1.09	2.04	2.50
모름/무응답	2.17	2.50	6.25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다음으로는 2016년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부자와 비기부자 모두에게 〈표 3〉에 있는 각각의 기부 분야에 대하여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기부자 그룹과 비기부

자 그룹의 평균 기부 계획금액은 각각 50.92만원과 49.75만원으로 조사되어 작년 기부 여부에 따른 올해 기부 계획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 계획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기부자 그룹에서 12%,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28%를 보인만큼 <표 11>의 결과를 2016년 평균 기부금 예상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¹⁰⁾.

<표11> 2016년 기부 계획금액 통계

(단위 : 만원,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50.91	9.66	20.00	804
비기부자	19.26	3.60	10.00	137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기부 계획금액을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한편 이번 2016 Giving Korea에서는 올해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과 비기부자들 가운데 약 20% 정도를 추출하여 2017년 초에 과연 계획한 만큼 기부를 했는지 실천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기부 행위는 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계획과 실천의 일치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연구자와 기부단체 및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0) 전화설문조사에서는 각각의 기부 분야에 대해 기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다시 문의하였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라도 계획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금액에 대해 모름/무응답한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합한 총기부 계획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Ⅲ. 2016 Giving Korea 기부관련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기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 간주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한편, 개인 기부자들 입장에서 기부단체의 운영과정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기부단체에서 활동 내역과 재정 상태를 공시하고 있긴 하지만 기부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기부단체에 대한 무지가 결국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기부단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2016 Giving Korea에서는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여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조사를 시도하였다.

1. 기부금 세금혜택

이번 조사에서는 먼저 기부금 세금혜택 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64%가 기부금에 세금혜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개인들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혜택에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와 종합소득자들에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를 만큼 저소득 근로자들 가운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부자 집단이 비기부자 집단보다 세금혜택 인지비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서 제도의 수혜 대상자들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기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2> 기부금 세금혜택 인지여부

(단위 : %)

	기부자	비기부자	총 응답자
알고 있음	77.41	53.24	64.26
모르고 있음	22.59	46.76	35.74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이러한 세금혜택 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6%는 기부금이란 정부가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23%는 기부금이 개인의 선택이므로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선택하였다. 10% 정도의 응답자들은 이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부금 세금혜택이 필요성에 대하여 기부자 집단과 비기부자 집단에서 반대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찬성하는 비율은 기부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기부금 세금혜택이 기부를 유인하는 작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들 가운데에는 기부를 한 경험을 통해 세금혜택을 알게 된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 세금혜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13〉 기부금 세금혜택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기부자	비기부자	총 응답자
필요함	71.03	62.23	66.24
필요 없음	22.82	23.93	23.43
모름/무응답	6.15	13.84	10.33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기부금 세금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4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5% 정도만 판단을 유보하였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반면에 기부금의 세금혜택을 모르고 있던 응답자들의 경우 50% 미만이 세금혜택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비율도 20%에 달한다.

그런데 기부금 세금혜택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세금혜택 필요성에 찬성한 비율이 찬성하지 않은 비율보다 13%p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¹¹⁾로서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조차 기부금이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개인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1) P-value=0.0000.

〈표14〉 기부금 세금혜택 인지에 따른 세금혜택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필요함	75.70	46.75
필요 없음	18.72	33.55
모름/무응답	5.58	19.70
합계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그러므로 〈표 13〉과 〈표 14〉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부금 세금혜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에 주고 있는 세금혜택의 찬반 여부를 물어보았다. 총 응답자들의 42%가 이 제도에 찬성하고 48%가 반대하였으며 10%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6%p 높은데 이러한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두 비율이 같다는 가설을 기각한다¹²⁾.

재밌는 것은 비기부자들보다 기부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다는 점이다. 다만 본 조사에서 종교단체 현금과 보시 성격의 기부금은 기부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들 중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 가운데 종교단체 현금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적 행위로 판단하여 기부금 세금혜택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결과가 전체 기부자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표15〉 종교단체 기부금 세금혜택 찬반 여부

(단위: %)

	기부자	비기부자	총 응답자
찬성함	42.26	40.90	41.52
찬성하지 않음	50.69	45.85	48.06
모름/무응답	7.05	13.25	10.42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16〉은 기부금 세금혜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종교기부금에 세금혜택을 주는 현 제도의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동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분포를 표로

12) P-value=0.0000.

정리하였다. 기부금 세제혜택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종교기부금 세제혜택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기부금 세제혜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즉, 현재의 기부금 세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 종교기부금의 세제혜택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앞으로의 기부금 세제개편과정에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결과를 종교기부금과 기타 자선목적의 기부금의 세제혜택 차별을 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금 세제혜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교기부금 세제혜택은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소수이긴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화설문 응답자들이 질문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부금 관련 세제에 일관성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두 질문에 하나라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18%에 달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표 16>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에 연구자들과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16> 기부금 세제혜택 필요성 여부와 종교기부금 세제혜택 찬성 여부 분포

(단위 : %)

기부금 세제혜택	종교기부금 세제혜택			합계
	찬성함	찬성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필요함	828	682	115	1,625
	(33.12)	(27.28)	(4.60)	(65.0)
필요하지 않음	150	401	54	605
	(6.00)	(16.04)	(2.16)	(24.2)
모름/무응답	80	85	105	270
	(3.20)	(3.40)	(4.20)	(10.8)
합계	1,058	1,168	274	2,500
	(42.32)	(46.72)	(10.96)	(100)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2. ()는 전체 응답자(2,500명)중에서 해당 세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기부단체 간접비 비율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기부단체들이 전체 기부금 모금액 중에서 몇 % 정도를 기부금 운용관련 행정비용인 간접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표 17>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는데 응답자들은 작년의 기부 경험과 상관없이 3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간접비가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표 17>은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기부자 그룹에서조차 40%가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전화설문의 특성상 응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질문은 잘 대답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무래도 대면면접과 비교하여 전화설문으로는 면접원들이 응답자들에게 질문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응답자들도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문방식의 차이로만은 이처럼 높게 나타난 무응답 비율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는 기부금의 간접비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평소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보지 못한 응답자들이 짧은 설문시간 동안 미처 합리적인 답을 생각해내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표17> 간접비 사용 예상 비율

(단위 : %)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32.47	0.80	30.00	659
비기부자	33.55	0.85	30.00	680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간접비 사용 예상 비율을 묻는 질문에 모름/무응답 경우를 제외하였음. 기부자 그룹에서는 40.35%인 460명이,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51.54%인 701명이 응답하지 않았음.

위 질문에 바로 뒤이어 기부금 모금단체들이 전체 기부금에서 기부금 운용관련 행정 비용인 간접비를 몇 %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표 17>과 <표 18>의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20% 수준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부단체들이 이보다 10%p 이상 간접비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짐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8>에서는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부단체들의 기부금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율을 응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18>의 결과는 <표 17>의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들로 한정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표 17>의 응답여부가 <표 18>의 응답결과에 편의를 가

저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18〉 간접비 사용 적정 기대 비율

(단위 : %)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20.79	0.49	20.00	911
비기부자	19.11	0.55	20.00	903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간접비 사용 적정 기대 비율을 묻는 질문에 모름/무응답 경우를 제외하였음. 기부자 그룹에서는 20.09%인 229명이,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33.60%인 457명이 응답하지 않았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에 부정적 인식을 만들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인식 결과만 가지고 기부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 단정 지어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부단체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간접비 운용비율 수준에 대하여 왜 20% 정도를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는 10%p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부단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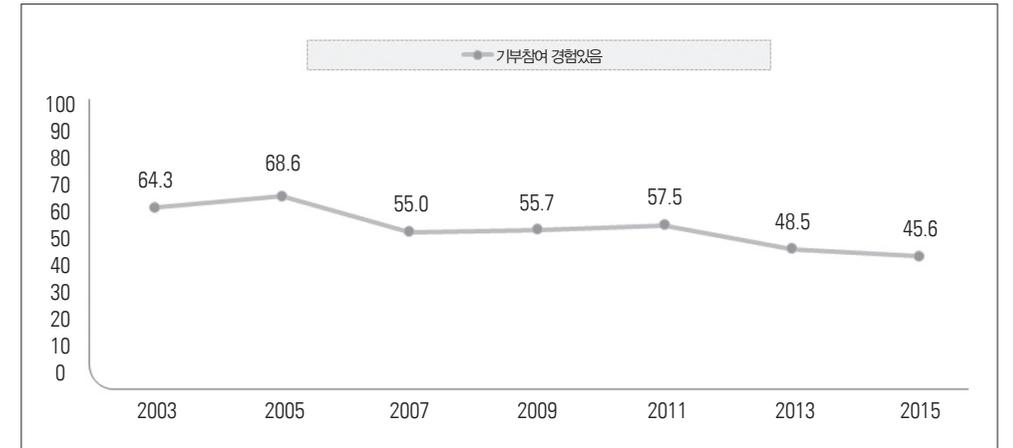
IV. 사회조사 자료와 비교

1. 기부 참여율

Giving Korea는 2002년 조사부터 종교적 목적의 현금과 보시와 같은 기부금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기부 참여를 정의할 때 현물 기부를 포함하여 왔다. [그림 3]은 종교적 현금과 보시는 제외하고 현물 기부는 포함하여 추정된 기부 참여율의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림 3〉 Giving Korea 기부 참여율 추세 변화

(단위 : %)



주: 1. 2003~2013년은 Giving Korea 2014 p.122 [그림 12]의 순수기부 참여율 결과를 인용하였음.
2. 2013년을 제외하고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기부 참여율 통계는 〈표 19〉와 같다. 통계청에서 기부 참여율을 추정할 때 적용한 기부에 대한 정의는 [그림 3]에 적용된 정의와 동일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표 19〉를 비교하면 두 조사 사이에 기부 참여율 통계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1년 이후 기부 참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두 조사에서 일치한다.

〈표19〉 사회조사 기부 참여율

(단위 : %, 명)

	2011	2013	2015
기부 참여율	36.4	34.6	29.9
표본수	(38,012)	(37,648)	(39,282)

주: 1. ()는 조사된 표본수를 의미함.
2. 사회조사는 통계청 보도자료 「2015년 사회조사 결과」 (2015. 11. 26)에서 인용하였음.
3. 사회조사의 각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4.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런데 Giving Korea와 사회조사는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Giving Korea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반면에 사회조사는 만 13세 이상의 개인을 조사한다. 〈표 20〉에서는 조사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회조사에서 만 18세 이하는 제외하고 기부 참여율을 재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여 Giving Korea와 비교하였다. 조사 대상 연령을 일치시켜도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의 기부 참여율 통계의 차이는 여전히 14~22%p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표20〉 기부 참여율 통계 비교

(단위 : %, 명)

2011		2013		2015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57.5	35.5	48.5	34.7	45.6	29.6
(1,029)	(33,827)	(1,007)	(34,138)	(2,500)	(35,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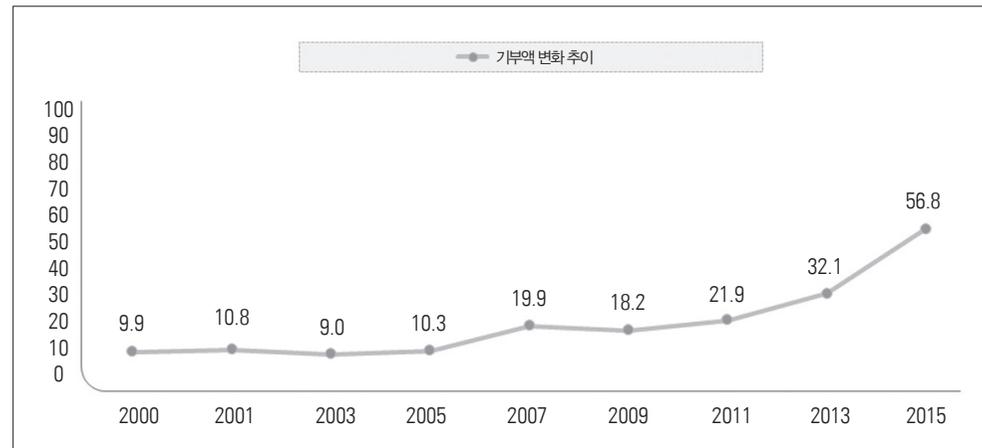
주: 1. ()는 조사된 표본수를 의미함.
 2. 사회조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임.
 3. 사회조사의 각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5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4.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 2014 Giving Korea 자료에 가중치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Giving Korea 2013년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2. 기부금액

[그림 4]는 Giving Korea 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기부금액 추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00년에 비하여 2015년에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를 종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Giving Korea 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은 줄어드는 대신 기부자 개인 1인당 기부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Giving Korea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추세 변화

(단위 : 만원)



주: 1. 2000~2013년은 Giving Korea 2014 p.126 [그림 15]의 순수기부액 결과를 인용하였음.
 2. 2000~2013년은 Giving Korea는 현물 기부의 경우 그 금액의 가치를 환산하여 기부금 계산에 포함하였음. 2015년은 현물 기부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임.
 3. 2013년을 제외하고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을 구하면 〈표 21〉과 같다. 사회조사는 현물 기부의 경우 기부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금액적 가치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 12〉는 오직 현금 기부금액의 평균을 나타낸다. 사회조사의 기부금액 정의는 2016 Giving Korea와는 일치하지만 그 이전의 Giving Korea에서는 현물 기부도 금액적 가치를 환산하여 조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림 4]의 Giving Korea 2015년 이전의 기부금액과 사회조사 기부금액을 비교할 때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표21〉 사회조사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단위 : 만원, 명)

	2011	2013	2015
평균 기부금액	16.1	19.9	31.0
기부자수	(13,213)	(12,225)	(10,767)

주: 1. 사회조사에서는 현물 기부는 제외하고 현금 기부의 기부금액만을 포함한 결과임.
 2. 사회조사의 각년도 평균 기부금액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3. 평균 기부금액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4. ()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현금 기부자수를 의미함.

〈표 22〉에서는 두 자료의 비교를 위해 기부금 범위를 현금 기부로 한정하고 만 19세 이상의 기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평균 기부금액을 구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1년의 경우 Giving Korea와 사회조사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차이가 8.6만원으로 벌어졌고 2015년에는 차이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 그런데 2015년 Giving Korea의 경우 1억원 이상을 기부한 2명의 기부자의 존재로 평균 기부금액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평균 기부금액이 37.3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조사 결과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표22〉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비교

(단위 : 만원, 명)

2011		2013		2015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21.1	18.8	30.1	21.5	56.8	33.7
(581)	(11,607)	(477)	(11,178)	(1,140)	(9,793)

주: 1.현물 기부는 제외하고 현금 기부의 기부금액만을 포함한 결과임.
 2. 사회조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임.
 3. 사회조사의 각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5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4. 평균 기부금액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5. ()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현금 기부자수를 의미함. Giving Korea 2013년은 가중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3. 차이의 원인 추론

과연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에서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기부라는 개념의 속성을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령의 구절처럼 기부를 남몰래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기부 경험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다. Giving Korea 조사의 경우 처음부터 기부에 대한 조사임을 밝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의 기부 경험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기부자들의 경우 설문조사 자체를 거절할 개연성이 있지만 사회조사는 기부를 포함하여 복지, 문화, 여가, 소득, 소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설문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조사에 자신의 기부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서 기부 참여율이 Giving Korea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각각의 자료에 포함된 고액 기부자 분포를 살펴보면 추론에 타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 2015년 사회조사의 경우 조사된 현금 기부액 최대값은 3,000만원에 머문다.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만 19세 이상 현금 기부를 했다고 응답한 전체 기부자의 0.115%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6 Giving Korea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이 4명 포함되어 전체 기부자들의 0.387%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2 Giving Korea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한 명도 없었고, 2014 Giving Korea에는 한 명 포함되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추론이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다만 이전의 Giving Korea에는 약 1,000명의 표본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고액기부자들이 아예 표집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표본을 2.5배 늘린 2016 Giving Korea에서 고액 기부자 표본이 표집된 것은 향후 진행될 Giving Korea에서 남몰래 하는 기부 행위 가설에 대한 검증가능성의 여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표23〉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비율 및 평균 기부액

(단위 : %, 만원)

	2011		2013		2015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비율	0.00	0.097	0.210	0.143	0.387	0.115
기부금액	-	1,400	1,360	1,200	6,010	1,340

- 주: 1. 기부자 중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비율임.
- 2. 사회조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임.
- 3. 사회조사의 각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5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 4.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표 23〉의 결과만을 가지고 Giving Korea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Giving Korea와 사회조사 자료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부 관련 자료의 상호 신뢰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향후 두 자료가 쌓여서 풍부한 정보가 가능해지면 연구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볼 만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V. 후속조사

1. 후속 조사 응답자 현황

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실태 후속 조사에는 1차 조사 전체 표본 2,500명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549명을 추적 조사하는데 성공하였다. 후속 조사는 응답자들이 2016년 한 해 동안의 기부 행태에 대한 기억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표 1〉은 후속 조사에 성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표를 살펴보면 2016 Giving Korea 전체 표본에 비하여 후속 조사에 성공한 표본이 다소 젊고 교육을 많이 받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그룹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³⁾. 〈표 1〉의 결과는 후속 조사 표본이 전체 표본을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결과 해석에 있어 후속 조사의 표본에 어느 정도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3) 1차 조사와 2차 조사 표본의 평균 연령이 같다는 가설과 평균 교육연수가 같다는 가설은 각각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으나 (P-value=0.0271, P-value=0.0250) 여성비율이 같다는 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P-value=).

〈표2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초통계량

	1차 조사	2차 조사
연령	49.49	47.67
	(17.50)	(17.47)
교육연수	12.73	13.13
	(3.99)	(3.74)
가구원수	3.02	3.01
	(1.30)	(1.27)
수도권거주	49.28%	50.82%
여성	50.44%	46.99%
기혼	64.78%	64.35%
표본수	2,500	549

주: 1. ()는 표준편차임.
 2. 원래 설문지의 문항은 응답자의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하부터 대학원재학이상까지 범주형으로 물어보았으나 이 표에서는 이를 학력수준별로 필요한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보고하였음.

2. 2015년 기부 참여율

후속 조사에 성공한 표본은 전체 표본에 비하여 2015년도 기부참여율이 5.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부에 적극적일수록 후속 조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 2〉는 〈표 1〉과 더불어 후속 조사의 결과를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더 이상 1차 조사에서 표본에 적용된 가중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모든 표본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후속 조사에 성공한 하나의 표본의 결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2016 Giving Korea 후속 조사의 명백한 한계이지만 그렇다고 조사된 표본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 통계량의 크기에는 편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방향성에 대한 예측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25〉 2015년 기부 참여율

	1차 조사	2차 조사
기부자	1,140	281
	(45.61%)	(51.24%)
비기부자	1,360	268
	(54.39%)	(48.77%)
표본수	2,500	549
	(100%)	(100%)

주: 1차 조사의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2016년 기부 참여 계획 및 기부 참여 실천

2015년 기부 참여 여부 및 2016년 기부 계획 여부에 따라 2016년에 실제로 기부를 실행했는지 조사해본 결과 2015년 기부자의 경우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228명 가운데 81.1%는 실제 기부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기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1명 중에서도 54.9%는 기부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비기부자의 경우에는 2016년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51명 중에 31.4%가 실제 기부에 참여하였고 기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219명 중에서는 21.5%가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결과는 2015년에 기부를 한 사람일수록 2016년에도 기부의 계획과 실천이 일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부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26〉 2016년 기부 참여 계획 및 기부 참여 실천

(단위 : %, 만원)

2015년	2016 기부 계획	2016 기부 참여	
기부자 (279)	있음	기부하였음	185
	(228)	기부하지 않았음	43
	없음	기부하였음	28
	(51)	기부하지 않았음	23
비기부자 (270)	있음	기부하였음	16
	(51)	기부하지 않았음	35
	없음	기부하였음	47
	(219)	기부하지 않았음	172

주: ()는 표본수를 의미함.

〈표 4〉에서는 〈표 3〉으로부터 2015년 기부여부에 상관없이 2016년 기부 계획 유무와 이에 따른 실제 기부실천 여부를 재정리하였다. 이 표를 보면 기부에 대한 계획은 약 30% 가까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애초에 기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율이 28% 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기부를 하게 되는 비율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즉, 기부란 의식주와 같이 필수재의 성격을 띤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표 3〉은 본인의 상황 혹은 주변의 외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27〉 2016년 기부 계획에 따른 기부 참여 실천

(단위: 명)

구분	2016 기부하였음	2016 기부하지 않았음	합계
2016 기부 계획 있음	201(72.0%)	78(28.0%)	279(100%)
2016 기부 계획 없음	75(27.8%)	195(72.2%)	270(100%)

4. 기부 계획 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비교

〈표 5〉는 기부 계획 유무와 실제 기부 여부에 따라 기부 2016년 기부 계획 금액과 실제 기부금액을 비교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부 계획도 갖고 있으며 실제 기부를 행한 기부자의 경우 계획 금액과 실제 금액이 평균 수준에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실제 기부금액이 계획 금액보다 6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 5〉의 결과는 또한 기부 계획 금액이 작을수록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애초에 기부할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도 일단 기부를 하게 될 경우 기부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기부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28〉 2016년 기부 계획 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단위: 만원, 명)

2016 기부 계획	2016 기부 여부	계획 금액	실제 금액
있음	기부하였음	44.05	49.97
		(66.74)	(90.00)
		[194]	[191]
	기부하지 않았음	16.03	0
		(22.40)	-
		[56]	-

없음	기부하였음	0	43.38
		-	(154.49)
		-	[64]

주: 1. 기부 계획 금액 혹은 실제 기부금액을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임.
2. ()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3. []는 표본수를 의미함.

5. 기부 계획과 실천의 불일치 이유

2016 Giving Korea 후속 조사에서는 작년 조사시점에 계획했던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의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5〉에서 기부 계획이 있었으며 실제로 기부를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계획만큼 기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64%에 달하였다. 더 기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6%, 덜 기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3.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시점에서는 작년 1차 조사에서의 기부 계획 금액에 대한 응답결과와 후속 조사에서의 실제 기부금액을 비교하지 않고 응답자의 대답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1차 조사의 실제 응답결과와 비교해보면 계획 금액보다 더 기부한 비율은 38%, 계획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기부한 비율은 20.7%, 계획 금액보다 덜 기부한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기부자들은 대체로 본인이 계획한 만큼 기부했다고 여기거나 혹은 계획보다 덜 기부한 경우 이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후속 조사에서 계획보다 더 많이 기부했거나 더 적게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들의 응답결과를 요약해보면 기부를 더 많이 했다고 느낀 15명의 경우에는 기부에 관련된 홍보를 접하거나 기부가 더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느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다만 이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응답자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부를 계획보다 적게 했다고 응답한 46명의 기부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져서라도 응답한 비율이 50%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하여서라는 이유가 22%, 기부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를 차지하였다.

〈표29〉 기부를 계획보다 덜한 이유

(단위 : 명,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할 마음 사라지는 사회 분위기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함	기타	합계
23	7	10	6	46
(50.0)	(15.2)	(21.7)	(13.0)	(100)

주: 1. ()는 비율을 의미함.
2. 기타의 이유로는 바빠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다음으로 〈표 7〉에서는 당초에 기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를 요약하였다. 제시된 보기 가운데 경제적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를 차지하여 〈표 6〉의 결과와 더불어 소득이 개인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부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작년 말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기부 계획을 철회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기부단체 신뢰성과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부재를 이유로 든 응답자들의 비율이 도합 20%를 넘게 나타난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을 향한 기부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30〉 기부 계획이 있었으나 기부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기부할 마음 사라지는 사회 분위기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함	기부단체/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음	모름/무응답	합계
45	8	10	6	10	78
(57.7)	(10.3)	(12.8)	(7.7)	(12.8)	(100)

주: ()는 비율을 의미함.

6. 2016 기부 참여와 촛불 집회 참여

이번 후속 조사에서는 2016년 말 급변했던 정치적 상황이 개인의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8〉은 2016년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촛불 집회 참여 여부를 물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작년 촛불 집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참가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만일 촛불 집회 참여를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라고 여기고 이를 또 다른 형태의 기부라고 인식한다면 금전적 기부와 대체관계 혹은 보완관계가 나타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질문은 과연 이러한 기부 행태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아래 표를 보면 기부 여부와 상관없이 약 23%의 응답자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정치적 상황이 기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과 금전적 기부 사이에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의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31〉 2016년 기부 참여와 촛불 집회 참여 여부

(단위 : 명, %)

구분	촛불 집회 참여	촛불 집회 미참여	모름/무응답	합계
기부하였음	65	210	4	279
	(23.3)	(75.3)	(1.4)	(100)
기부하지 않았음	61	208	1	270
	(22.6)	(77.0)	(0.4)	(100)

주: ()는 비율을 의미함.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2016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를 여러 방면에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제일 먼저 2016 Giving Korea가 이전의 Giving Korea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번 2016 Giving Korea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토론함으로써 개인 기부에 대한 독자들의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Giving Korea 자료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Giving Korea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간략한 논의를 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Giving Korea는 기존의 Giving Korea의 전통은 최대한 살리고 시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여러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과 같이 가구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한 표본이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서 회귀 분석 등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한 적절한 추정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으로 Giving Korea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2016 Giving Korea에서는 처음으로 후속 조사를 시도해보았다. 처음 시도인 만큼 조사 설계와 조사결과 해석에 있어 미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부 계획과 기부 실천의 일치 여부를 후속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다른 조사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Giving Korea의 이러한 노력이 기부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송헌재, 「가구 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결정」,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4년 기획연구 보고서』, 2014.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3년 한국인의 기부지수 (유산기부, 상호부조)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한국기부의 재발견-갯돈부터 유산까지」, 『Giving Korea 2014』, 2014.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5. 11. 26)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 : 아동균형생활시간을 중심으로¹⁾

I. 연구의 배경

‘좀 쉬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정책·공약 10대 분야 33개 제안에 대한 조사결과 12.6%로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교육시간 축소에 대한 요구였고 또 사교육 축소(8.6%), 시험 축소(8.3%), 예체능 수업 확대(7.3%) 등의 요구가 뒤를 이었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 요구의 배경이 되는 이유들을 헤아려볼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주당 공부시간이 60시간으로 OECD 가운데 가장 길고 사교육과 방과후 수업은 평균 9시부터 시작해 이는 OECD 중에 가장 빨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습노동’으로 인한 시험이나 성적스트레스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데 지금까지 성인들은 아동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는 미래사회를 짊어질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아동권리 협약국이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아동과 관련된 많은 지표들은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지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사실 실증적인 수치와 근거들이 드러나면서 부터이다. 즉 이와 같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아동권리차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작업이 중요하다. 이에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아동복지지표를 개발해 아동 권리 옹호의 실증적 근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이봉주 외, 2013).

1) 본 원고는 정익중, 박현선, 최은영, 이수진, 정수정, 최선영, 김기태(2016)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고서』에 기반하여 수정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최근 우리나라도 다양한 아동관련 ‘지표’ 및 ‘지수’가 개발되어 발표되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와 2013년부터 시작된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삶의 질 지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의 ‘행복지수’는 UNICEF가 개발하여 보급한 ‘행복지수’ 항목을 변용한 6개 영역(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행동, 주관적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의 ‘삶의 질 지수’는 Europe에서 사용하는 ‘index of child well-being’을 변용하여 8개 영역(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아동정책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아동정책 지표’를 구성하고, 향후 아동의 행복·건강·웰빙 상황을 모니터링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존 국외 지표들은 대부분 아동이 살기에 좋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표 자체도 다소 포괄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이를 ‘한국사회의 아동권리 차원의 문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 개발된 지표들은 지표의 개발 목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문항들은 대부분 아동의 ‘행복’이나 ‘만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아동 관련 정책 제언에는 차별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받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국 아동의 권리를 생활시간과 이에 따른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아동권리지수’를 개발하여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 활용 하고자 했다. 생활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활시간의 배분은 사회적 역할, 타인과의 관계성, 해당 사회의 가치, 문화적 정체성 등을 반영하며(Shanahan & Flaherty, 2001), 구성원의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시간의 배분과 활용에 반영하게 되므로 청소년 대상 생활시간 연구는 그들의 의식 및 문화, 가치나 규범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이미식, 전필여, 2008). 또한 청소년기 주된 활동인 학습과 여가시간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생활시간의 활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Jaffe, 1998; Larson & Richard, 1989; 김기현, 이경상, 2006 재인용), 취약계층(결손가정의 자녀나 빈곤가정, 유색인종, 이민자)의 자녀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생활시간의 활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Coleman & Hendry, 1999; 김기현, 이경상, 2006 재인용) 이들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기존 통계청에서 주관한 전국민 대상 ‘생활시간조사’도 본 연구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보호나 발달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경험 변수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여타 배경 변수 없이 생활시간만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어 권리 옹호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규범적 기준과 비교해

생활시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와 추이를 보여주는 데에서만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과 관련해 분석할 수 있는 주요 배경변수를 추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발달산물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아동권리라는 관점에서 시간배분이란 생활양식(lifestyle)의 변화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주요 생활 영역에서 아동,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권장되는 국제적인 기준들을 검토하여 생활시간을 통한 아동권리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아동권리 옹호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II. 아동 균형생활시간 개념과 기준

1. 아동 균형생활시간의 개념

본 연구가 주목하는 ‘아동 균형생활시간’이란 아동의 주요 생활시간(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에 있어서 아동발달과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번 아동생활시간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우리나라 아동들의 주요 생활시간 실태(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가 아동에게 권장하는 생활시간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생활시간 실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은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의 4개 영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권장하는 생활시간에 대한 국외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아동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수면, 신체활동(운동), 미디어 시간에 관하여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공부시간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의 과중한 학습량을 고려하여 공부 시간 또한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주요 아동생활시간(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시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되는 것인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검토한 후 연구진들의 협의를 거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아동생활시간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우리나라 아동의 시간사용 실태가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의 충족 정도와 아동의 발달산물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아동 권장생활시간에 대한 국외 기준

1) 수면시간

수면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표 1〉 권장 수면시간(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 NHLBI, 미국 국립수면재단 NSF)

연령	권장수면시간				
신생아	하루에 16~18시간				
영유아	하루에 11~12시간				
학령기 아동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				
10대청소년	하루에 9~10시간				

	부적당	적당	권장	적당	부적당
신생아(0~3개월)	11시간 미만	11~14시간	14~18시간	18~20시간	20시간 초과
영아(4~11개월)	10시간 미만	10~12시간	12~16시간	16~19시간	19시간 초과
영아(1~2세)	9시간 미만	9~11시간	11~15시간	15~17시간	17시간 초과
유아(3~5세)	8시간 미만	8~10시간	10~14시간	14~15시간	15시간 초과
아동(6~13세)	7시간 미만	7~9시간	9~12시간	12~13시간	13시간 초과
청소년(14~17세)	7시간 미만	7~8시간	8~11시간	11~12시간	12시간 초과

불충분한 수면은 집중력이나 기억력 손상, 기분장애(mood disorder), 운동기술 손상,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력 저하 등 광범위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문제와 연관되며, 특히 아동기의 불충분한 수면은 학업성취 저하, 비만 및 자살생각, 음주 및 약물 문제 증가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적절한 수면은 중요한 건강 이슈에 해당한다(Matricciani et al., 2012). Oginska와 Pokorski(2006)는 “수면 부족은 현대 사회의 흔한 전염병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아동의 불충분한 수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학자 또는 연구기관들이 아동을 위한 적정수면시간을 제시하여 왔다.

아동이 연령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루에 최소 9시간 이상을 권장수면시간 지침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에 대하여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NHLBI)는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을 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수정된 미국 국립수면재단(NSF)의 가이드라인은 하루에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을 권장수면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공부(학업)시간

아동의 공부시간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주로 학교에서 아동에게 부과되는 숙제시간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주로 숙제 시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숙제는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는 학년에 따라 급격히 바뀐다고 보고되고 있다(Cooper, 1989). 초등학교에서의 숙제와 학업성취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Cooper et al., 2006; Kohn, 2006), 중학교 이상에서는 일관적으로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동이 숙제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연관성은 더욱 강화된다고 보고된다(Copper et al., 2007). 중학생에게는 하루에 1~2시간의 과제를 넘지 않는 한에서 숙제가 많을수록 성취가 향상되며, 고등학생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숙제가 많을수록 성취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Cooper, 1989).

그러나 아동에게 지나치게 많은 숙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Cooper et al., 2006). 과도한 양의 숙제는 학업스트레스 및 건강 문제와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는 아동이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비학업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게 한다는 것이다 (Galloway et al., 2013).

〈표 2〉 국외 학자들이 권장하는 가정 내 학습(숙제) 시간

구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Good and Brohpy (2003)	하루에 과목당 5~10분			하루에 과목당 30~60분
Cooper (2008)	“10-minute rule” : 매일의 숙제는 학생의 학년에 10분을 곱한 시간 정도			
	하루에 0~30분	하루에 30~60분	하루에 60~90분	하루 90~120분
Cooper (2008)				하루 1시간 30분 ~2시간 30분
Pope (2014)			하루 1시간 30분 이하	하루 2시간 이하
Zentall (1999)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	1주일에 15~45분 정도의 2~4개의 숙제	1주일에 45~75분 정도의 3~5개의 숙제	1주일에 75~150분 정도의 4~5개의 숙제

아동에게 적절한 숙제시간에 관하여 Good and Brohpy(2003)는 숙제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난이도와 길이 면에서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4학년 학생에게는 과목당 5~10분 정도가 적절한 반면, 고등학생에게는 과목당 30~60분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Cooper(2007)는 “10-minute rule”을 제안하여 매일의 숙제는 학생의 학년에 10분을 곱한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만약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서활동이 숙제로 포함된다면, 10-minute rule은 15분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Cooper(2008)는 고등학생에게 숙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하루에 2시간 정도까지이며, 2시간을 넘어갈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적절한 숙제시간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ope(2014)는 아동에게 적절한 숙제시간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도록, 중학생의 경우에는 하루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Zentall(1999)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 숙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1주일에 15~45분 정도의 2~4개의 숙제, 중학생의 경우 1주일에 45~75분 정도의 3~5개의 숙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주일에 75~150분 정도의 4~5개의 숙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3) 운동시간

아동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신체활동은 뼈와 근육, 관절 등의 근육골격계나 심장이나 폐 등의 심혈관계, 협응과 움직임 조절 등의 신경근 활동, 건강한 체중 유지와 같은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 또한 아동의 신체활동은 아동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제를 향상시키는 등 심리적으로도 유익한 영향을 주며, 아동에게 자기표현의 기회 및 자기 확신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WHO, 2011).

〈표 3〉 권장 운동시간(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보건복지부, 호주 보건부)

구분	권장 운동시간
5-17세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7세 아동은 하루 최소 60분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한다. • 60분을 초과하는 운동 시간은 건강에 부가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준다.
아동 및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은 매일 60분 또는 그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구분	신체활동	앉아있는 활동
0-1세	출생 후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회에 1시간 이상 앉아있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3-5세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5-12세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 매일 앉아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함
13-17세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 장시간 앉아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신체활동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아동에 대한 권장 운동시간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브라이트퓨처(BrightFuture) 재단에서도 유아기 아동을 위한 권장 운동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준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동에게 주로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중~고 강도(moderate to vigorous intensity physical activity)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편이다. 그와 동시에 아동의 건강을 위해 수면을 제외한 ‘앉아 있는 활동(sedentary activity)’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UNICEF의 아동의 웰빙 지표는 WHO의 기준을 반영하여 ‘아동(11세, 13세, 15세)이 지난 1주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하였던 일수’를 아동의 웰빙 지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4) 미디어시간

최근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까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아동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아동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을 우려하여 미디어 사용시간에 대한 제한시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표 4〉 권장 미디어시간(미국 소아과의사협회 AAP, 호주 보건부)

구분	권장 미디어 시간
2세 이하	TV나 다른 오락 매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세 이상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1~2시간 시청하고, 그 이상 시청해서는 안 된다.
0-2세	TV 등 전자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을 권장
2-5세	1시간 이하로 볼 것을 권장
5-18세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 오락을 위하여 2시간 이상 보지 않을 것을 권장

특히 아동들에 있어서도 정보를 일방향으로 수용하는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저가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아동의 미디어 사용은 공격적 행동, 위험한 성적 행동, 약물 사용 및 식이장애 등에 있어서 주요 원인은 아닐지라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rasburger et al., 2010).

한편, 미디어의 잠재적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아동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함으로써 공감능력이나 다양성에 대한 수용능력을 증진시키고(Hogan et al., 2008),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적 프로그램은 아동의 초기 문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의가 그 예이다(Linebarger & Walker, 2005).

아동의 미디어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해외에서는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사용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스크린 타임(screen time)'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Ⅲ. 연구방법

1. 생활시간 조사항목의 구성

1) 생활시간조사문항

전체 아동생활시간조사 문항은 4개의 아동권리 영역에서 32개의 시간활용 경험으로 구성했다.

〈표 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생활시간조사 조사항목

구분	생활시간 조사항목		측정방법
생존권과 관련된 생활시간	수면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식사시간(아침, 점심, 저녁)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		1주일간 평균 횟수
보호권과 관련된 생활시간	씻기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등하교(원)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
	부모님이나 어른 없이 혼자(아이들만) 집보기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발달권과 관련된 생활시간	신체적 체벌		1년간 횟수
	교육 시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한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사교육(학습)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사교육(예체능)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	친구와의 대화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친구와의 통화/SNS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부모와의 대화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부모와의 통화/SNS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집안일 돕기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친척방문	1년간 횟수
		가족외식	1년간 횟수
		가족여행	1년간 횟수
	여가 시간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이한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독서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운동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30분 이상 운동한 날	1주일간 평균 횟수
		음악·미술활동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관람활동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아무 것도 안하고 쉬는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미디어 시간	TV(DVD)시청 시간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컴퓨터 시간(학습 및 정보검색, SNS, 게임, 오락)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스마트폰 시간(학습 및 정보검색, SNS, 게임, 오락)	하루 평균 시간(평일/휴일)	
참여권과 관련된 생활시간	봉사활동	참여 여부, 1년간 총 참여시간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1년간 총 참여시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1년간 하루 참여시간(평일/휴일)	

생활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행위들은 생활시간으로 측정하고, 생활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행위들, 즉, 체벌, 친척방문, 가족외식, 가족여행,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동아리활동 등은 경험과 횟수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생활시간 측정문항의 척도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처럼 시간일지(time diary)를 기록하는 형태가 아니라, 생활시간 측정항목을 제시하고 시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유형화된 추정법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²⁾.

한편, 아동 균형생활지표는 국제적인 권장시간 준거가 있는 수면, 공부(학습), 운동, 미디어시간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시간과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공부시간은 방과후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사교육시간을 모두 합한 총점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시간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모두 합한 점수로 측정하였다.

2) 발달산물 및 배경변수 조사문항의 구성

① 발달산물

주요 발달산물 조사문항의 구성은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생활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가 고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에서 번안한 문항을 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우울도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공격성은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아동청소년패널 설문지에서 사용한 것이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스트레스도 청소년패널 중2패널 2차 설문지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 2003).

생활만족도는 이정미(2011)가 타당화 연구를 한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생생활 만족척도의 문항들 중 친구,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각 3문항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삶의 수준(Currie et al., 2012), 음주, 흡연, 학업성적도 추가 변수로 구성하였다.

2)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처럼 시간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방법은 시간 순서에 따른 활동, 빈도, 지속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 기간 동안의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Juster, 1985; Larson and Verma, 1999; Verma et al., 1995). 그러나 시간일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지도해야 하며, 훈련을 시키더라도 응답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대 경험이나 여행 등 시간일지로 파악하기 힘든 생활시간도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에 중요한 생활시간 측정항목을 유형화하여 제공하고, 해당 시간을 회고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② 배경변수

기본적인 배경변수로서 지역, 지역크기, 학년, 성별, 가족유형, 부모학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부모직업여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국가로부터 교육비 지원 여부, 가족원 수, 가구 월 평균소득 등도 조사항목으로 함께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마찬가지로 만 10~18세 아동으로 하되, 현실적인 연구여건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 4·5학년, 중등 1·2학년, 고등1·2학년, 총 1,000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층화학생수 비례 할당추출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및 그 보호자(법정대리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N(%)	구분		측정방법
성별	남	511(51.1)	지역	서울특별시	171(17.1)
	여	489(48.9)		부산광역시	62(6.2)
연령	초등 4-5	271(27.1)		대구광역시	52(5.2)
	중 1-2	361(36.1)		인천광역시	55(5.5)
	고 1-2	368(36.8)		광주광역시	35(3.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7(95.7)		대전광역시	34(3.4)
	편모가정	34(3.4)		울산광역시	25(2.5)
	편부가정	4(0.4)		경기도	257(25.7)
	조손가정	4(0.4)		강원도	29(2.9)
	기타가정	1(0.1)		충청도	75(7.5)
경제 수준	1(매우 못 산다)	6(0.6)		전라도	73(7.3)
	2	12(1.2)		경상도	118(11.8)
	3	64(6.4)		제주도	14(1.4)
	4(보통 수준)	481(48.1)		부학력	학교 안 다님

경제 수준	5	341(34.1)	부학력	초등학교 졸업	2(0.2)	
	6	93(9.3)		중학교 졸업	4(0.4)	
	7(매우 잘 산다)	3(0.3)		고등학교 졸업	294(29.4)	
지원여부	유	74(7.4)	부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199(19.9)	
	무	926(92.6)		4년제 대학교 졸업	453(45.3)	
가구소득	월 49만원 이하	2(0.2)	부학력	대학원 졸업	32(3.2)	
	월 50-99만원	1(0.1)		무응답	14(1.4)	
	월 100-149만원	8(0.8)		학교 안 다님	2(0.2)	
	월 150-199만원	17(1.7)	모학력	초등학교 졸업	2(0.2)	
	월 200-249만원	22(2.2)		중학교 졸업	4(0.4)	
	월 250-299만원	34(3.4)		고등학교 졸업	410(41.0)	
	월 300-349만원	100(10.0)		2-3년제 대학 졸업	227(22.7)	
	월 350-399만원	95(9.5)		4년제 대학교 졸업	339(33.9)	
	월 400-499만원	267(26.7)		대학원 졸업	12(1.2)	
	월 500-599만원	262(26.2)		무응답	4(0.4)	
	월 600-699만원	94(9.4)		부직업	유	977(97.7)
	월 700-799만원	51(5.1)			무	9(0.9)
	월 800-899만원	27(2.7)	무응답		14(1.4)	
	월 900-999만원	4(0.4)	모직업	유	586(58.6)	
	월 1,000만원 이상	15(1.5)		무	409(40.9)	
	소득 없음	1(0.1)		무응답	5(0.5)	
지역크기	대도시	434(43.4)				
	중소도시	512(51.2)				
	읍/면	54(5.4)				
합계		1,000(100.0)				

심리정서 등 발달산물 변수에 대한 조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가족유형, 부모학력, 부모직업여부, 주관적 경제수준, 교육비지원여부, 가족원수, 월평균소득 등 기본 배경변수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동의 보호자(법정대리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국적인 대규모의 표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이 조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와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최종 참여한 조사대상인 총 1,000명의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2) 조사방법

조사지역은 서울과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시도이며, 조사 시기는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을 알 수 있는 시점인 학기 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9월~11월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초등학생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면접원이 질문하면 조사대상자가 응답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설문지에 기입하게 하는 대인면접방식(Face-to-Face Survey)의 개별면접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늦은 귀가시간 등으로 면접이 힘든 경우 보호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면접원이 재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는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

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 선정

앞선 장에서 아동에게 권장하는 생활시간에 대한 국외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제시한 기관이나 학자들 혹은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권장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위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진들의 협의 하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유의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수면시간의 경우, 미국 수면재단(NSF)과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NHLBI)의 기준을 참고하여 유아의 경우 하루 10~14시간, 초등학생은 하루 9~12시간, 중고등학생은 하루 8~10시간을 권장 수면시간으로 정하였다.

<표 7> 어린이재단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 선정결과

	권장 수면시간	권장 공부시간	권장 운동시간	권장 미디어시간
유아(만5세)	10~14시간	-	1시간 이상	1시간 이하
초등저학년(초1)	9~12시간	-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초등고학년(초4)	9~12시간	30~120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중학생(중2)	8~10시간	60~150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고등학생(고2)	8~10시간	90~180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공부시간의 경우, 숙제 시간에 관한 Cooper(2007)의 기준을 참고하여 ‘일일 혼자공부시간 적정기준(초등 저학년 0~30분, 초등 고학년 30~60분, 중학생 60~90분, 고등학생 90~120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혼자공부시간의 국제 기준을 일일 권장공부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방과후 학습활동이나 사교육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일일 권장 공부시간 범위의 하한기준선은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반영하여 혼자공부시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되, 상한기준선은 사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60분씩 상향 조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권장(적정)공부시간 기준은, 초등학교학년은 30~120분, 중학생은 60~150분, 고등학생은 90~180분이며, 공부와 놀이가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초등 저학년과 유아기에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운동시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참고하여 전 연령대에 있어서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을 권장 운동시간으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시간의 경우, 미국 소아과협회(AAP) 및 호주 보건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유아는 하루 1시간 이하,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하루 2시간 이하를 권장 미디어시간으로 하였다.

4. 아동권리지수 산출

생활시간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우리나라 아동들의 생활시간 사용실태가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의 4개 주요 생활시간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즉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 충족영역수를 합산해 ‘0점’(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4개 영역 모두 충족하지 못함)부터 ‘4점’(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4개 영역 모두 충족함) 사이의 점수를 계산해 지수화 하였다³⁾. 지수화란 여러 지표들을 묶어 하나의 지수로 단순화하는 과정으로 여러 집단이나 지역을 비교가 있어 용이함을 제공한다(이봉주, 2016).

이에 따라 아동권리지수도 4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아동의 주요 생활시간이 균형적인 상태에 있고, 반면 아동권리지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에서 벗어난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아동의 수면시간이 권장기준에 비해 적고(-) 공부시간은 권장기준에 비해 많으며(+) 반면 운동시간은 권장기준에 비해 적고(-) 또 미디어시간이 권장기준을 넘어서면(+) 이때의 아동권리지수는 0점이 되고,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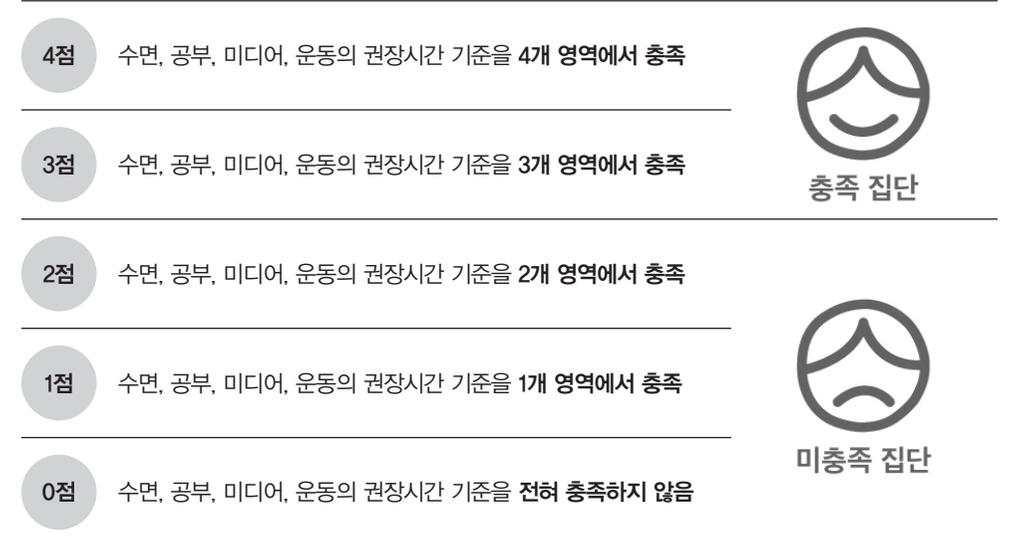
3) 아동의 평일 시간사용을 기준으로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 시간을 측정하였고, 공부시간은 학교 공교육 시간을 제외한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 시간 및 가정에서의 학습 시간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미디어 시간은 TV 및 컴퓨터(정보검색, SNS, 게임, 동영상), 스마트폰(정보검색, SNS, 게임, 동영상) 시간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아동은 4가지 주요 아동의 기본 생활영역이 모두 권장기준에 어긋난 몹시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아동권리지수를 통한 판단방법은 개별 아동 또는 학교급, 성별, 지역크기, 가족유형, 빈곤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별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실태가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에 비추어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권리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들의 생활시간 사용실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나 아동의 발달산물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분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아동권리지수를 과반이상인 3점 이상의 집단(균형생활시간 충족집단)과 과반이하인 2점 이하의 집단(균형생활시간 미충족 집단)으로 구분해 집단 간 어떠한 차이(생활시간, 발달산물 등)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즉, 두 집단 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등 발달산물과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아동에게 균형적인 생활이나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의 균형적 혹은 불균형적 라이프스타일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그림 1〉 아동권리지수(균형생활시간 충족집단 vs 균형생활시간 미충족 집단)



IV. 분석결과

1. 수면시간

1) 수면시간 실태

전체 아동의 수면시간은 평균적으로 평일 7시간 22분, 주말 8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일 기준으로 수면은 초등학생 8시간 19분, 중학생 7시간 35분, 고등학생 6시 27분으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동의 수면 시간 분석

구분		수면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연령	초	8:19	9:11	0:20	0:25	0:26	0:29	0:30	0:34
	중	7:35	9:04	0:16	0:22	0:25	0:26	0:27	0:31
	고	6:27	8:32	0:15	0:21	0:26	0:26	0:26	0:30

평소 잠을 충분히 잔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잠을 충분히 잔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연령을 기준으로 '그렇다' 52.1%, '그렇지 않다' 37.1%, 로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고등학교 연령대가 되면 60% 이상의 학생들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표 9〉 잠을 충분히 잔다고 느끼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잠을 충분히 잔다고 느끼는지 여부				x ²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초	2(0.7)	38(14.0)	197(72.7)	34(12.5)	169.14***
	중	6(1.7)	126(34.9)	199(55.1)	30(8.3)	
	고	27(7.3)	207(56.3)	125(34.0)	9(2.4)	
전체		35(3.5)	371(37.1)	521(52.1)	73(7.3)	

***p<.001

2) 권장수면시간 기준 분석

조사대상 아동의 평일 수면시간을 권장 수면시간 기준(초등고학년 9~12시간, 중·고등학생 8~10시간) 및 적정 수면시간 기준(초등고학년 7~9시간 또는 12~13시간, 중고등학생 7~8시간 또는 10~12시간)⁴⁾에 따라 과소, 적정, 권장의 3집단으로 분류하여 해당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와 같다.⁵⁾

전체 아동의 수면시간 비율을 살펴보면 권장 31.7%, 적정 41.4%, 과소 26.9%로, 과반수의 아동(73.1%)이 권장 및 적정 수면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권장 수면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아동은 0.0%로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다수면보다 수면부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은 권장 및 적정의 비율이 99.3%에 달하였으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권장 및 적정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감소하여 중학생은 87.5%, 고등학생은 3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과소수면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하여 초등학생 0.7%, 중학생 12.5%, 고등학생 60.3%로 나타나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10〉 권장 수면시간 기준 충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면시간			x ²
		과소	적정	권장	
연령	초	2(0.7)	184(67.9)	85(31.4)	397.971***
	중	45(12.5)	133(36.8)	183(50.7)	
	고	222(60.3)	97(26.4)	49(13.3)	
지역 크기	대도시	130(30.0)	195(44.9)	109(25.1)	16.286**
	중소도시	123(24.0)	199(38.9)	190(37.1)	
	읍면	16(29.6)	20(37.0)	18(33.3)	
전체		269(26.9)	414(41.4)	317(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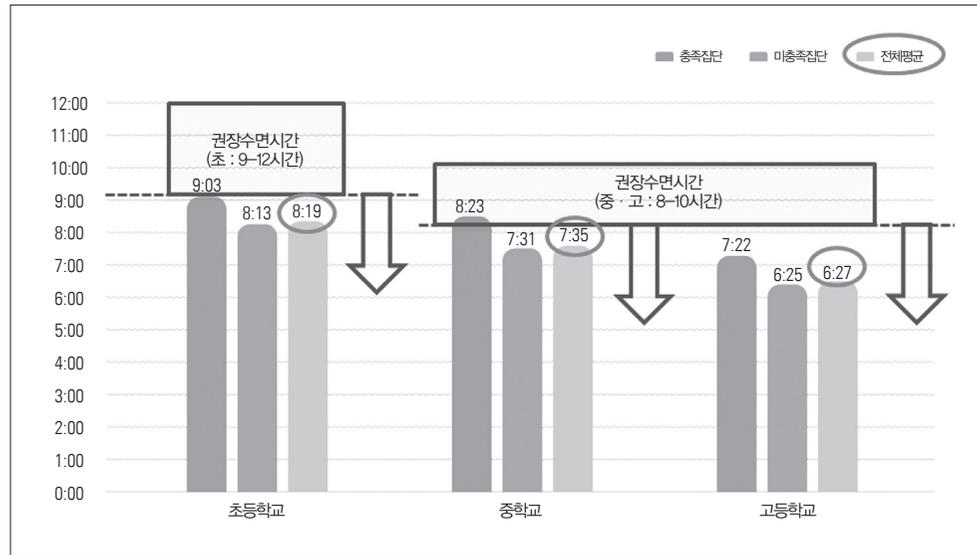
p<.01, *p<.001

4) 미국 국립수면재단(NSF)의 기준을 참조함

5) 수면시간 비교의 경우, 최초 분석은 과소, 적정, 권장, 과다집단의 비교로 이루어졌으나 과다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어서 최종분석은 과소와 적정, 권장기준에 의거하여 비교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아동 중 권장 수면시간 기준을 초과하여(초등학생 12시간 초과, 중고등학생 10시간 초과) 잠을 잔다고 보고한 아동은 없었으므로, 적정 집단의 경우에도 권장수면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아동만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크기별로 살펴보면 권장수면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은 대도시 25.1%, 중소도시 37.1%, 읍면 33.3%로 대도시 아동의 비율이 더 낮았으며, 지역크기에 따른 권장 수면시간 기준 충족 여부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그림 2〉 권장 수면시간 기준 충족 여부(학교급별)



2. 공부 시간

1) 공부 시간 실태 분석

발달권과 관련된 아동생활시간 중 교육과 관련된 시간으로서 집에서 혼자 공부한 시간, 학습을 위한 사교육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가정에서 혼자 공부한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경우 평일 1시간 14분, 주말 1시간 36분으로 주말이 평일보다 약 20분 정도 더 긴 편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평일 51분, 주말 59분, 중학생 평일 1시간 7분, 주말 1시간 22분, 고등학생 평일 1시간 36분, 주말 2시간 16분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추측할 수 있다.

학원, 과외, 학습지, 방과후 프로그램 등 학습을 위한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경우 평일 1시간 58분, 주말 59분으로 주말보다 평일에 사교육(학습)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평일 1시간 50분, 주말 19분,

중학생 평일 2시간 13분, 주말 49분, 고등학생 평일 1시간 50분, 주말 1시간 39분으로 평일은 유사하였으나 주말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학습)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1〉 교육시간 관련 생활시간 분석

단위 : 시간

구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한 시간		사교육(학습)		사교육(예체능)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연령	초	0:51	0:59	1:50	0:19	0:56	0:10
	중	1:07	1:22	2:13	0:49	0:22	0:12
	고	1:36	2:16	1:50	1:39	0:22	0:14
전체		1:14	1:36	1:58	0:59	0:31	0:12

2) 권장 공부시간 기준 분석

조사대상 아동의 혼자공부시간 및 사교육(학습) 시간을 합산하여 평일 공부시간을 산출한 후, 이를 권장 공부시간 기준(초등 고학년 30~120분, 중학생 60~150분, 고등학생 90~180분)에 따라 권장공부, 과소공부, 과다공부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아동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12〉 참조).

〈표 12〉 권장 공부시간 기준 충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면시간			x ²
		과소	권장	과다	
연령	초	7(2.6)	92(33.9)	172(63.5)	94.940***
	중	121(33.5)	92(25.5)	148(41.0)	
	고	71(19.3)	119(32.3)	178(48.4)	
지역 크기	남	111(21.7)	136(26.6)	264(51.7)	7.157*
	여	88(18.0)	167(34.2)	234(47.9)	
가족 유형	양부모	186(19.4)	287(30.0)	484(50.6)	5.801 ⁺
	기타	13(30.2)	16(37.2)	14(32.6)	

소득 빈곤	비빈곤	179(19.3)	274(29.5)	476(51.2)	10.863**
	빈곤	20(28.2)	29(40.8)	22(31.0)	
주관적 빈곤	비빈곤	172(18.7)	269(29.3)	477(52.0)	21.787***
	빈곤	27(32.9)	34(41.5)	21(25.6)	
전체		199(19.9)	303(30.3)	498(49.8)	

†p<.10, *p<.05, **p<.01, ***p<.001

분석결과, 전체 아동 중 권장공부에 해당하는 아동이 30.3%로 나타나 69.7%의 아동이 권장 공부시간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 중 과소공부에 해당하는 아동은 19.9%, 과다공부에 해당하는 아동은 49.8%로 전체 아동의 약 절반가량이 권장공부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가정학습을 하거나 사교육을 받으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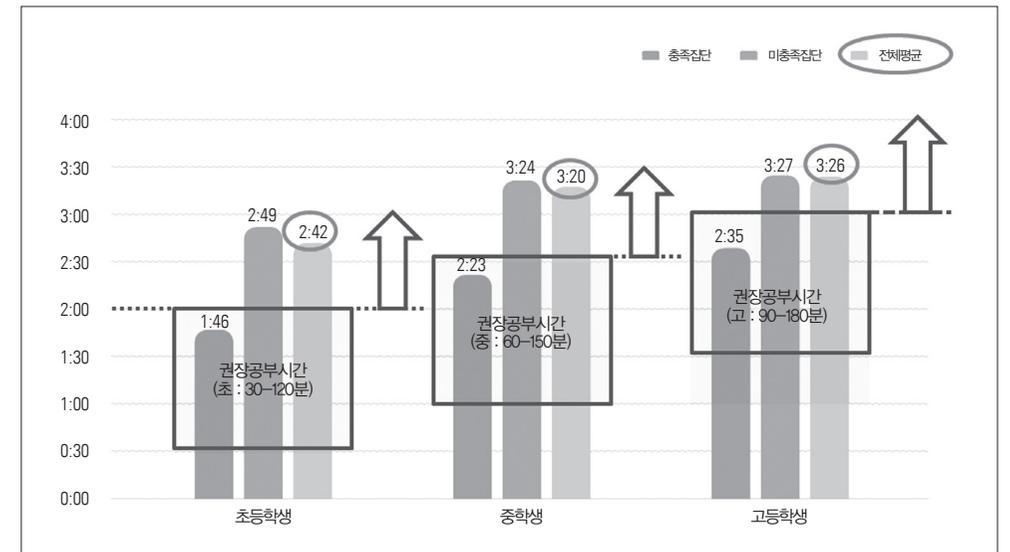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권장 33.9%, 과소 2.6%, 과다 63.5%로, 중학생은 권장 25.5%, 과소 33.5%, 과다 41.0%, 그리고 고등학생은 권장 32.3%, 과소 19.3%, 과다 48.4%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하여 과다공부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과소공부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권장공부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권장 공부시간기준 충족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은 권장 26.6%, 과소 21.7%, 과다 51.7%였고, 여자 아동은 권장 34.2%, 과소 18.0%, 과다 47.9%로 나타났다.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하여 권장공부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해 과소공부 및 과다공부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가족유형으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은 권장 30.0%, 과소 19.4%, 과다 50.6%, 기타 가정은 권장 37.2%, 과소 30.2%, 과다 32.6%로 양부모 가정 아동이 기타 가정 아동에 비하여 과다공부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높고 과소공부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낮은 편으로서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10).

소득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비빈곤 아동은 과소 19.3%, 과다 52.0%, 빈곤 아동은 과소 28.2%, 과다 31.0%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빈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비빈곤 아동이 빈곤 아동에 비하여 과다 시간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높은 반면, 과소 시간에 속하는 아동이 적은 편이었다(**p<.01).

〈그림 3〉 권장 공부시간 기준 충족 여부(학교급별)



3. 운동시간

1) 운동시간 실태

1주일에 30분 이상 운동한 횟수를 살펴보면 〈표13〉와 같다. 전체 아동의 경우 1주일에 30분 이상 운동한 횟수는 '0회'가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2회' 37.6%, '3~4회' 15.1%, '5~6회' 12.9%, '매일' 4.4% 순으로 나타나 전체 아동의 60% 이상의 운동 횟수가 1주일에 0~2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1주일에 30분 이상 운동한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수면시간					x ²	평균
		0회	1~2회	3~4회	5~6회	매일		
연령	초	55(20.3)	94(34.7)	42(15.5)	61(22.5)	19(7.0)	51.90***	2.61
	중	116(32.1)	131(36.3)	66(18.3)	35(9.7)	13(3.6)		2.16
	고	129(35.1)	151(41.0)	43(11.7)	33(9.0)	12(3.3)		2.04
전체		300(30.0)	376(37.6)	151(15.1)	129(12.9)	44(4.4)		2.24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1주일에 '0회' 운동한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20.3%인 반면, 중학생은 32.1%, 고등학생은 35.1%였으며, 1주일 간 평균 운동 횟수는 초등학생이 2.61회, 중학생이 2.16회, 고등학생이 2.04회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운동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권장 운동시간 기준 분석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평일 운동시간이 권장 운동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14>), 전체 아동의 25%가 권장 운동시간 기준을 충족한 반면, 나머지 75%는 권장 운동시간 기준인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권장 운동시간 기준 충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운동시간		x ²
		권장	과소	
연령	초	100(36.9)	171(63.1)	31.441***
	중	85(23.5)	276(76.5)	
	고	65(17.7)	303(82.3)	
성별	남	167(32.7)	344(67.3)	32.881***
	여	83(17.0)	406(83.0)	
지역크기	대도시	94(21.7)	340(78.3)	5.054 [†]
	중소도시	139(27.1)	373(72.9)	
	읍면	17(31.5)	37(68.5)	
가족 유형	양부모	227(23.7)	730(76.3)	19.449***
	기타	23(53.5)	20(46.5)	
소득 빈곤	비빈곤	218(23.5)	711(76.5)	16.419***
	빈곤	32(45.1)	39(54.9)	
주관적 빈곤	비빈곤	220(24.0)	698(76.0)	6.394 [*]
	빈곤	30(36.6)	52(63.4)	
전체		250(25.0)	750(75.0)	

[†]p<.10, *p<.05,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권장 36.9%, 과소 63.1%, 중학생은 권장 23.5%, 과소 76.5%, 고등학생은 권장 17.7%, 과소 82.3%로, 초등학생이 권장 운동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권장 운동시간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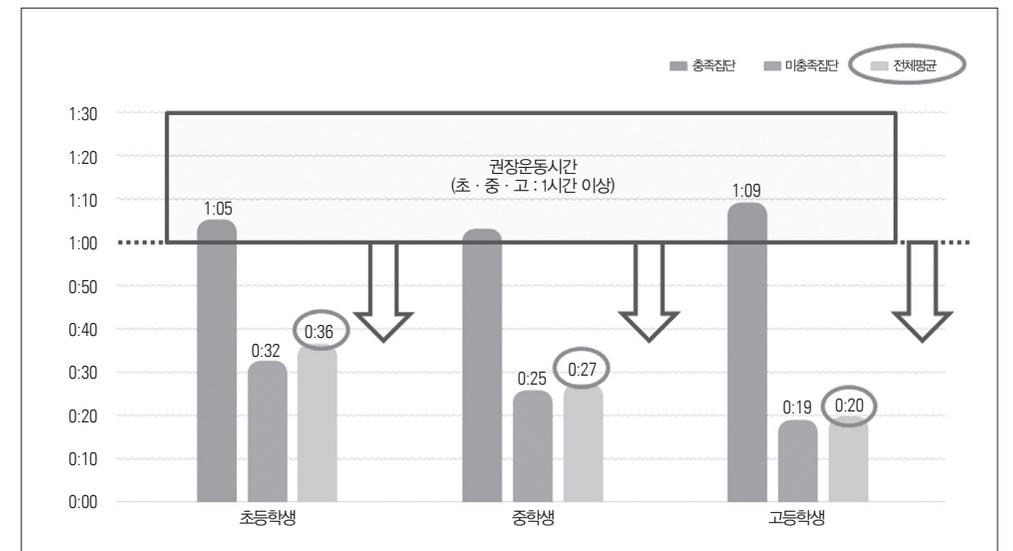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은 권장 32.7%, 여자 아동은 권장 17.0%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권장 운동시간 기준에서 더 벗어나 있었다 (**p<.001).

지역크기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권장 21.7%, 중소도시는 권장 27.1%, 읍면은 권장 31.5%로 읍면 아동이 권장 운동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p<.10).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은 권장 23.7%, 과소 76.3%, 기타 가정은 권장 53.5%, 과소 46.5%로, 양부모 가정 아동이 기타 가정 아동보다 과소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았다 (**p<.001).

소득 빈곤을 기준으로 비빈곤 아동은 권장 23.5%, 빈곤 아동은 45.1%로 비빈곤 아동이 빈곤 아동보다 과소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주관적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p<.05).

<그림 4> 권장 운동시간 기준 충족 여부(학교급별)



4. 미디어시간

1) 미디어 생활시간 실태

미디어 시간은 TV시청 시간, 컴퓨터 시간, 스마트폰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시간과 스마트폰 시간의 경우 아동의 미디어 기기 활용 용도에 따라 학습 및 정보검색, SNS, 게임, 동영상 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① TV시청 시간과 컴퓨터 활용 시간

미디어시간 중 TV시청 시간 및 컴퓨터 시간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조사대상 아동의 평균 TV시청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TV 시청' 1시간 1분, 컴퓨터 시간 중 '학습 및 정보검색' 26분, 'SNS' 15분, '게임' 26분, '동영상' 15분으로 나타났다.

<표 15> 미디어 : TV시청, 컴퓨터 관련 아동생활시간 분석

단위 : 시간

구분		TV시청		컴퓨터							
				학습 및 정보검색		SNS		게임		동영상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연령	초	1:24	2:40	0:22	0:23	0:10	0:11	0:30	0:55	0:17	0:27
	중	1:07	2:39	0:25	0:29	0:20	0:26	0:30	1:01	0:17	0:30
	고	0:40	1:51	0:30	0:37	0:16	0:22	0:18	0:40	0:13	0:26
전체		1:01	2:18	0:26	0:30	0:15	0:20	0:26	0:51	0:15	0:28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TV 시청' 시간이 1시간 24분으로 가장 길었고, 'SNS(컴퓨터)' 시간이 10분으로 가장 짧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TV 시청' 시간이 가장 길었고, '동영상(컴퓨터)' 시간이 17분으로 가장 짧았다.

② 스마트폰 활용 시간

미디어 시간 중 스마트폰 시간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조사대상 아동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학습 및 정보검색(스마트폰)' 18분, 'SNS(스마트폰)' 44분, '게임(스마트폰)' 29분, '동영상(스마트폰)' 23분으로 나타났다.

<표 16> 미디어: 스마트폰과 관련된 아동생활시간 분석

단위 : 시간

구분		스마트폰							
		학습 및 정보검색		SNS		게임		동영상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연령	초	0:13	0:14	0:26	0:32	0:32	0:54	0:18	0:29
	중	0:18	0:23	0:50	1:09	0:34	0:56	0:26	0:38
	고	0:21	0:27	0:51	1:12	0:23	0:39	0:23	0:38
성별	남	0:17	0:20	0:37	0:49	0:39	1:05	0:24	0:36
	여	0:19	0:24	0:51	1:12	0:19	0:33	0:22	0:35
전체		0:18	0:22	0:44	1:00	0:29	0:49	0:23	0:35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평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게임(스마트폰)' 시간이 32분으로 가장 길었고, '학습 및 정보검색(스마트폰)' 시간이 13분으로 가장 짧았다. 중학생은 'SNS(스마트폰)' 시간이 50분으로 가장 길었고, '학습 및 정보검색(스마트폰)' 시간이 18분으로 가장 짧았다. 고등학생은 'SNS(스마트폰)' 시간이 51분으로 가장 길었고, '학습 및 정보검색(스마트폰)' 시간이 21분으로 가장 짧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평일 기준으로 남자 아동은 '게임(스마트폰)' 시간이 39분으로 가장 길었고, '학습 및 정보검색(스마트폰)' 시간이 17분으로 가장 짧았다. 여자 아동은 'SNS(스마트폰)' 시간이 51분으로 가장 길었고, '학습 및 정보검색, 게임(컴퓨터)' 시간이 각각 19분으로 가장 짧았다.

2) 권장 미디어 시간 기준 분석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평일 미디어시간이 권장 미디어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17>), 권장 미디어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권장 18.8%, 과다 81.2%, 중학생은 권장 21.6%, 과다 78.4%, 고등학생은 권장 32.9%, 과다 67.1%로, 초등학생이 권장 미디어시간 기준에 벗어나는 과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학교급에 따른 권장미디어시간 충족여부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소득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비빈곤 아동은 권장 25.8% 과다 74.2%, 빈곤 아동은 14.1%, 과다 85.9%로 비빈곤 아동이 빈곤 아동보다 권장 미디어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또한 주관적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비빈곤 아동은 권장 26.0% 과다 74.0%, 빈곤 아동은 13.46%, 과다 86.6%로 비빈곤 아동이 빈곤 아동보다 권장 미디어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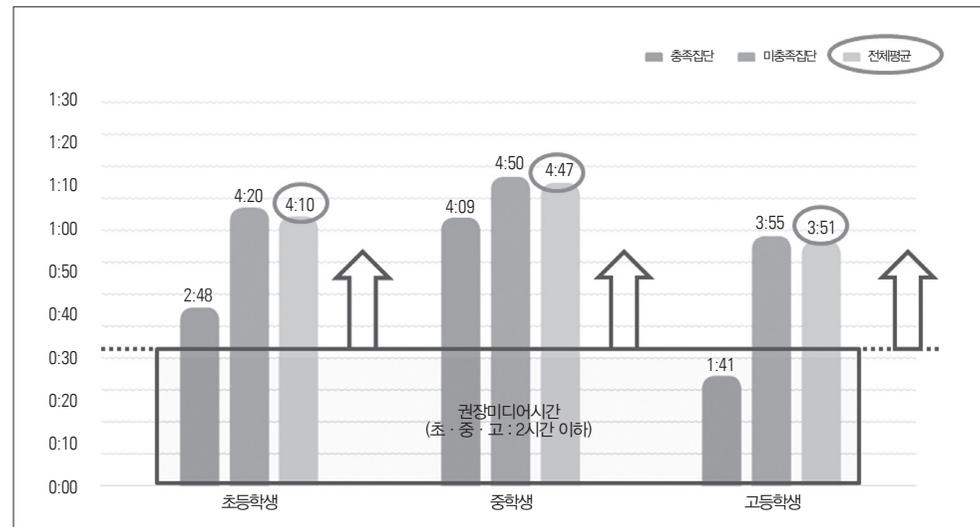
〈표 17〉 권장 미디어시간 기준 충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운동시간		x ²
		권장	과소	
연령	초	51(18.8)	220(81.2)	19.927***
	중	78(21.6)	283(78.4)	
	고	121(32.9)	247(67.1)	
가족 유형	양부모	244(25.5)	713(74.5)	2.924
	기타	6(14.0)	37(86.0)	
소득 빈곤	비빈곤	240(25.8)	689(74.2)	4.857*
	빈곤	10(14.1)	61(85.9)	
주관적 빈곤	비빈곤	239(26.0)	679(74.0)	6.394*
	빈곤	11(13.4)	71(86.6)	
전체		250(25.0)	750(75.0)	

*p<.05, ***p<.001

〈그림 5〉 권장 미디어시간 기준 충족 여부(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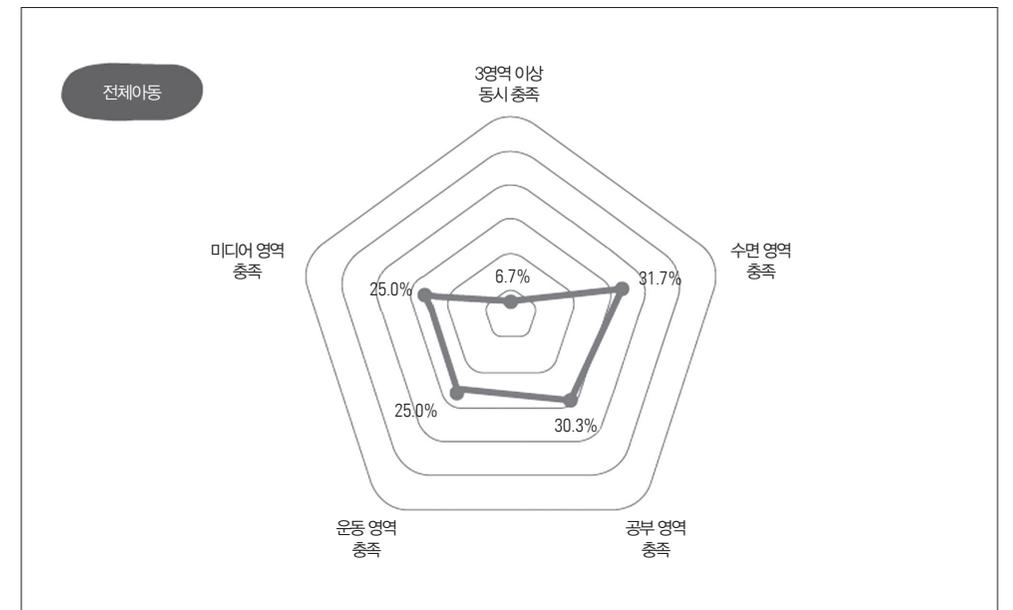
5. 아동 집단별 아동균형생활시간을 충족하는 아동의 비율

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의 4가지 주요 생활시간 영역에 관하여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각 아동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전체 아동 중에서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 중 수면 영역을 충족하는 아동은 31.7%, 공부 영역을 충족하는 아동은 30.3%, 운동 영역을 충족하는 아동은 25.0%, 미디어 영역을 충족하는 아동은 25.0%에 불과하였고, 총 4가지 영역 중 3가지 이상의 영역을 동시에 충족하는 아동의 비율도 6.7%로 나타나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초등학교의 경우 3가지 이상의 시간영역을 동시에 충족하는 아동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영역의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비율은 20% 미만으로 매우 낮아 대부분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아동균형생활기준에 비해 과도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아동균형생활시간을 충족하는 아동의 비율



중학생의 경우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 중 3가지 이상의 시간영역을 동시에 충족하는 아동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수면 영역의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전체 아동에 비하여 공부 및 미디어 영역의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 중 3가지 이상의 시간영역을

동시에 충족하는 아동 비율은 3.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수면 영역 및 운동 영역에서는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면 및 운동 부족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아동균형생활시간 및 발달산물과의 관계

1) 아동균형생활시간 여부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① 수면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조사대상 아동의 평일 수면시간을 각 연령대별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으로 분류할 때 발달산물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우울에 있어 과소 수면집단이 평균 1.84, 적정 수면집단이 평균 1.76, 권장 수면집단이 평균 1.75점으로, 과소 수면집단이 적정 및 권장 수면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과소 수면집단이 평균 2.08, 적정 수면집단이 평균 2.02, 권장수면집단이 평균 1.99점으로, 과소수면집단이 권장 수면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18〉 수면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구분	전체		비교집단						F	Duncan ³⁾
			과소(N=269)		적정(N=414)		권장(N=317)			
	M	SD	M	SD	M	SD	M	SD		
자아존중감	2.93	0.38	2.91	0.38	2.94	0.38	2.94	0.39	0.698	
우울	1.76	0.51	1.84	0.50	1.76	0.50	1.75	0.51	3.194*	a>b,c
공격성	1.87	0.54	1.88	0.55	1.86	0.51	1.88	0.58	0.206	
스트레스	2.02	0.49	2.08	0.46	2.02	0.49	1.99	0.53	2.422†	a>c
생활만족도	2.74	0.35	2.60	0.35	2.76	0.35	2.75	0.37	2.049	
주관적 삶의 수준	6.79	1.46	6.72	1.44	6.76	1.42	6.89	1.53	1.084	
주관적 건강	3.25	0.51	3.21	0.52	3.29	0.50	3.23	0.51	2.432†	
학업성적	3.26	0.84	3.26	0.85	3.28	0.82	3.24	0.86	0.195	

† p<.10, *p<.05

한편, 음주를 경험한 아동 비율은 과소 수면집단 22.3%, 적정 수면집단 13.3%, 권장 수면집단 11.0%로 과소 수면집단에서 가장 높았다(**p<.001). 또 흡연 경험에 있어서도 과소 수면집단 12.3%, 적정 수면집단 6.6%, 권장 수면집단 7.4%로 과소 수면집단에서 가장 높았다(*p<.01).

〈표 19〉 수면시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단위: 명(%)

구분		과소	적정	권장	x ²
음주 여부	유	60(22.3)	55(13.3)	35(11.0)	16.110***
	무	209(77.7)	359(86.7)	282(89.0)	
흡연 여부	유	32(12.3)	27(6.6)	23(7.4)	7.368*
	무	228(87.7)	384(93.4)	287(92.6)	
전체		260(100.0)	411(100.0)	317(100.0)	

*p<.05, ***p<.001

② 공부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조사대상 아동의 평일 공부시간(혼자공부시간 및 사교육(학습)시간)을 각 연령대별로 제시된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초등고학년 30~120분, 중학생 60~150분, 고등학생 90~180분)으로 권장, 과소 및 과다 집단으로 분류하여 발달산물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0〉, 〈표 21〉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권장 공부집단이 평균 2.96점, 과소 공부집단이 평균 2.88점, 과다 공부집단이 2.93점으로, 사후분석결과 권장 공부집단이 과소공부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10). 생활만족도는 권장 공부집단이 평균 2.72점, 과소 공부집단이 평균 2.67점, 과다 공부집단이 평균 2.78점으로, 사후분석결과 과다 공부집단이 과소 공부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비슷하게 주관적 삶의 수준은 권장 공부집단이 평균 6.76점, 과소 공부집단이 평균 6.50점, 과다 공부집단이 평균 6.93점으로, 사후분석결과 과다 공부집단이 과소 공부집단보다 주관적 삶의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업성적은 권장 공부집단이 평균 3.25점, 과소 공부집단이 평균 2.90점, 과다 공부집단이 평균 3.41점으로, 사후분석결과 권장 및 과다 공부집단이 과소 공부집단보다 학업성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0〉 공부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구분	전체		비교집단						F	Scheffe ⁴⁾
			과소(N=167)		권장(N=335)		과다(N=498)			
	M	SD	M	SD	M	SD	M	SD		
자아존중감	2.93	0.38	2.88	0.39	2.96	0.38	2.93	0.38	2.54†	a<b
우울	1.78	0.51	1.79	0.55	1.74	0.48	1.79	0.50	0.92	a>b,c
공격성	1.87	0.54	1.88	0.60	1.85	0.53	1.88	0.52	0.23	
스트레스	2.02	0.50	2.02	0.49	2.02	0.49	2.03	0.50	0.18	a>c
생활만족도	2.74	0.35	2.67	0.32	2.72	0.35	2.78	0.36	7.86***	a<c
주관적 삶의 수준	6.79	1.46	6.50	1.38	6.76	1.59	6.93	1.39	6.28**	a<c
주관적 건강	3.25	0.51	3.28	0.60	3.27	0.51	3.23	0.49	0.79	
학업성적	3.26	0.84	2.90	0.89	3.25	0.85	3.41	0.76	28.15***	a<b,c

† p<.10, *p<.05

음주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과소 공부집단 16.6%, 권장 공부집단 15.8%, 과다 공부집단 13.9%로 과소 공부집단이 가장 높았고, 과다 공부집단이 가장 낮았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흡연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과소 공부집단 13.6%, 권장 공부집단 7.0%, 과다 공부집단 7.1%로 과소 공부집단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21〉 공부시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단위 : 명(%)

구분		과소	권장	과다	x ²
음주 여부	유	33(16.6)	48(15.8)	69(13.9)	1.071
	무	166(83.4)	255(84.2)	429(86.1)	
흡연 여부	유	26(13.6)	21(7.0)	35(7.1)	8.547*
	무	165(86.4)	277(93.0)	457(92.9)	
전체		199(100.0)	303(100.0)	498(100.0)	

*p<.05

③ 운동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조사대상 아동의 평일 운동시간을 각 연령대별로 제시된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으로 권장 및 과소 집단으로 분류해 발달산물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 및 카이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2〉, 〈표 23〉과 같다.

〈표22〉 운동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구분	전체		비교집단				t
			권장(N=250)		과소(N=750)		
	M	SD	M	SD	M	SD	
자아존중감	2.93	0.38	3.00	0.40	2.91	0.37	3.33***
우울	1.78	0.51	1.75	0.57	1.78	0.49	-0.74
공격성	1.87	0.54	1.83	0.57	1.88	0.53	-.29
스트레스	2.02	0.50	1.91	0.55	2.06	0.47	-4.32***
생활만족도	2.74	0.35	2.85	0.38	2.70	0.34	5.64**
주관적 삶의 수준	6.79	1.46	7.01	1.59	6.71	1.41	2.80**
주관적 건강	3.25	0.51	3.31	0.54	3.23	0.50	2.05*
학업성적	3.26	0.84	3.24	0.91	3.27	0.82	-0.53

*p<.05, **p<.01, ***p<.001

자아존중감은 권장 운동집단이 평균 3.00점, 과소 운동집단이 평균 2.91점으로 권장 운동집단이 과소 운동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스트레스는 과소 운동집단이 평균 2.06점으로 권장 운동집단의 평균 1.91점에 비해 더 유의하게 높았다(**p<.001)고 생활만족도는 과소 운동집단이 평균 2.70점으로 권장 운동집단의 평균 2.85점보다 더 유의하게 낮았고(**p<.01), 주관적 삶의 수준도 과소 운동집단이 평균 6.71점으로 권장 운동집단의 평균인 7.01점보다 유의하게 낮고(*p<.01), 주관적 건강에 있어서도 과소 운동집단이 평균 3.23점으로 권장 운동집단의 평균 3.31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표 23〉 운동시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단위 : 명(%)

구분		과소	권장	x ²
음주 여부	유	34(13.6)	116(15.5)	0.512
	무	216(86.4)	634(84.5)	
흡연 여부	유	22(8.9)	60(8.2)	0.148
	무	224(91.1)	675(91.8)	
전체		250(100.0)	750(100.0)	

p<.01, *p<.001

④ 미디어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조사대상 아동의 평일 미디어시간을 각 연령대별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으로 분류해 발달산물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표 24〉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권장 미디어집단이 평균 3.03점, 과다 미디어집단이 평균 2.90점으로 권장 미디어집단이 과다 미디어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4〉 미디어시간에 따른 발달산물의 차이 분석

구분	전체		비교집단				t
			권장 (N=250)		과다 (N=750)		
	M	SD	M	SD	M	SD	
자아존중감	2.93	0.38	3.03	0.38	2.90	0.38	4.73***
우울	1.78	0.51	1.70	0.48	1.80	0.51	-2.81**
공격성	1.87	0.54	1.80	0.50	1.89	0.55	-2.35*
스트레스	2.02	0.50	2.01	0.46	2.03	0.51	-0.50
생활만족도	2.74	0.35	2.74	0.32	2.74	0.37	-0.15
주관적 삶의 수준	6.79	1.46	7.01	1.44	6.71	1.46	2.80**
주관적 건강	3.25	0.51	3.23	0.48	3.26	0.52	-0.83
학업성적	3.26	0.84	3.46	0.89	3.19	0.81	4.33***

*p<.05, **p<.01, ***p<.001

우울은 과다 미디어집단이 평균 1.80점으로 권장 미디어집단의 평균 1.70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그리고 공격성은 과다 미디어집단이 평균 1.89점으로 권장 미디어집단의 평균 1.80점에 비해 더 유의하게 높았다(*p<.05).

주관적 삶의 수준은 과다 미디어집단이 평균 6.71점으로 권장 미디어집단의 평균 7.01점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p<.01) 학업성적은 과다 미디어집단이 평균 3.19점으로 권장 미디어집단의 평균 3.46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한편, 미디어시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25〉 미디어시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분석

단위 : 명(%)

구분		권장	과다	x ²
음주 여부	유	33(13.2)	117(15.6)	0.85
	무	217(86.8)	633(84.4)	
흡연 여부	유	16(6.5)	66(9.0)	1.53
	무	231(93.5)	668(91.0)	
전체		250(100.0)	750(100.0)	

7. 아동권리지수 수준에 따른 발달산물 차이 분석 (균형생활시간 충족집단 vs 미충족집단)

아동권리지수 수준(균형생활시간 충족/미충족 집단)에 따라 아동이 보이는 발달산물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6> 아동권리지수 수준별(균형생활시간 충족 집단별) 발달산물 차이 분석

구분	전체		비교집단				t
			충족 집단 (충족 영역수 3점 이상)		미충족 집단 (충족 영역수 3점 미만)		
	M	SD	M	SD	M	SD	
자아존중감	2.93	0.38	3.11	0.36	2.92	0.38	4.121***
우울	1.78	0.51	1.64	0.43	1.78	0.51	-2.214*
공격성	1.87	0.54	1.79	0.49	1.88	0.54	-1.308
스트레스	2.02	0.50	1.89	0.48	2.03	0.50	-2.288*
생활만족도	2.74	0.35	2.81	0.36	2.74	0.35	1.774†
주관적 삶의 수준	6.79	1.46	7.22	1.63	6.76	1.45	2.528*
주관적 건강	3.25	0.51	3.28	0.60	3.25	0.50	0.466
학업성적	3.26	0.84	3.37	0.92	3.25	0.83	1.142

† p<.10, *p<.05, ***p<.001

<표 27> 아동권리지수 수준별(균형생활시간 충족 집단별) 문제행동 차이 분석

구분		충족 집단 (충족 영역수 3점 이상)	미충족 집단 (충족 영역수 3점 미만)	x ²
음주 여부	유	4(6.0)	146(15.6)	3.495*
	무	63(94.0)	787(84.4)	
흡연 여부	유	4(6.1)	78(8.5)	0.488
	무	62(93.9)	835(91.5)	
전체		67(100.0)	933(100.0)	

*p<.05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경우 충족집단이 평균 3.11점, 미충족 집단이 평균 2.92점으로 충족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고(**p<.001), 우울의 경우 충족 집단이 1.64점, 미충족 집단이 1.78점으로 충족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으며(*p<.05), 스트레스의 경우 충족집단이 1.89점, 미충족 집단이 2.03점으로 충족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도 충족 집단이 2.81점, 미충족 집단이 2.74점으로 충족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으며(†p<.10), 주관적 삶의 수준은 충족 집단이 7.22점, 미충족 집단이 6.76점으로 충족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음주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은 충족 집단이 6.0%, 미충족 집단이 15.6%로 충족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공격성, 주관적 건강, 학업성적, 흡연 여부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V. 결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는 아동 권리의 문제를 ‘아동균형생활시간’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별 생활시간차원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되었지만 아동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들이 주요 생활 영역(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사용)별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발달권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아동 중에서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수면시간 영역이 31.7%, 공부시간 영역이 30.3%, 운동시간 영역과 미디어시간 영역이 각각 25.0%에 불과하고 위 4가지 영역 중에서 3가지 영역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아동 비율도 6.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소수면과 과소운동, 과다공부와 과다미디어사용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양상으로 ‘잘 권리’와 ‘운동할 권리’를 상당부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나친 학업수행으로 ‘실내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여가를 즐길 권리’도 침해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운동하고 뛰어 노는 시간이 현격히 적어지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불균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혹자는 이러한

학구열이 우리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적인 삶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절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면 다른 활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학업과 입시준비로 필수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듯 아동권리지수가 높은 즉, 균형생활시간에 보다 부합하는 '충족 집단' 아동들이 아동권리지수가 낮은 '미충족 집단' 아동들에 비하여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주관적 삶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우울 및 스트레스는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음주 행동과 같은 행동 문제도 아동권리지수가 높은 '충족 집단' 아동들에게서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 잡힌 생활시간이 아동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불균형적인 아동 생활의 실상과 발달 저해 문제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전국의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로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도 76.6점으로 우리나라와 16점 이상 차이가 났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네덜란드(94.2점)는 무려 30점 넘게 차이가 났다. 또한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로 아동 상태를 측정된 결과 식생활, 교육자료, 사회활동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 아동들의 결핍의 정도가 54.8%를 기록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결핍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직전 조사인 2008년보다 높아졌으며, 9~11세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는 2.02, 12~17세는 2.16으로 5년 전의 1.82, 2.14보다 상승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생의 16.3%, 중고생의 9.3%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으며, 중고생의 경우 2008년 조사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아동의 생존권 측면을 충족하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동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동빈곤율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단순히 빈곤이나 결핍으로만 분석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결핍지수가 높은 것도 이유이겠지만 대체로 학업과 여가 등 시간의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동빈곤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균형생활시간 개념은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아동균형생활시간 개념은 빈곤 가구 자체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빈곤 이외의 박탈되거나 불균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아동빈곤정책이 단순히 경제적·물질적 결핍현상을 중시하여 이전 지출 위주의 소득보장정책을 추구하였다면,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권리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많은 옹호활동이 있었지만 아동 전체와 관련된 옹호활동은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결국 전체 아동에 대한 예방적·포괄적·장기적인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생활시간의 배분은 해당 사회의 가치 및 정체성 등을 반영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아동균형생활시간 개념은 사회구조 내 사회문화적 변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향상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아동 옹호활동은 행복, 삶의 질, 만족도 등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아동균형생활시간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목표 및 해결책과 연결될 수 있어 아동 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보육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아동공약을 제안하였다. 미래의 자산인 아동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금의 경제적인 지원들은 우리나라 아동가족들에게 생활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생활시간분석을 통해 아동의 삶을 들여다본 결과와 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아동의 균형적인 발달은 사실 하루 24시간 동안 아동이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하느냐 즉, 아동의 고른 활동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공부에만 매몰된 불균형적인 아동의 실상을 조금씩 균형화 하도록 부모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촉구하는 일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보다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새정부는 지금부터 아동이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과 균형적인 아동발달 환경이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구축되어 갈 수 있도록 아동옹호활동을 민·학과 함께해 구체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를 바래본다.

참고문헌

- 김기현, 이경상 (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 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미식, 전필여 (2008). 학생의 생활시간 활용 및 도덕과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28, 158-183.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Joan Yoo (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 이봉주 (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11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 이정미 (2011).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생생활만족척도(K-MSL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15-13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1~2차년도 설문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1~3차년도 설문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설문지.
- Australia's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 Guidelines (2014, July 10). Retrieved from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health-pubhlth-strateg-phys-act-guidelines>
- Cooper, H. (1989). Synthesis of research on homework. Educational Leadership, 47(3), 85-91.
- Cooper, H. (2007). The battle over homework: Common ground for administrators, teachers, and parents(3rd ed).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Cooper, H. (2008). Homework: What the research says [Research brief]. Reston, VA: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 Cooper, H., Robinson, J. C., & Patall, E. A. (2006). Does homework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 synthesis of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6, 1-62.
- Enayati, A. (2014, March 21). "Is homework making your child sick?". CNN, Retrieved from <http://edition.cnn.com/2014/03/21/health/homework-stress/>
- Galloway, M., Conner, J. & Pope, D. (2013). Nonacademic Effects of Homework in Privileged, High-Performing High School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81(4), 490-510.
-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Retrieved from <http://www.who.int/dietphysicalactivity/publications/9789241599979/en/>.
- Good, T. L., & Brophy, J. E. (2003). Looking in classrooms (9th ed.). Boston: Allyn & Bacon.
- Hirshkowitz, M., Whiton, K., Albert, S. M., Alessi, C., Bruni, O., DonCarlos, L., Hazen, N., Herman, J., Katz, E. S., Kheirandish-Gozal, L., Neubauer, D. N., O'Donnell, A. E., Ohayon, M., Peever, J., Rawding, R., Sachdeva, R. C., Setters, B., Vitiello, M. V., Ware, J. C. & Hillard, P. J. A. (2015). National Sleep Foundation's sleep time duration recommendations: methodology and results summary. Sleep Health, 2015(1), 40-43.
- Hogan, M. J., Strasburger, V. C. (2008). Media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Nucci L., Narvaez, D., (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537-553.
- Linebarger, D. H., Walker, D. (2005). Infants' and toddlers' television viewing and language outcom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5), 624-645.
- Matriciani, L. A., Olds, T. S., Blunden, S., Rigney, G. & Williams, M. T. (2012). Never Enough Sleep: A Brief History of Sleep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Pediatrics, 129(3), 548-556.
- OECD (2014). Time Use across the world.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gender/data/OECD_1564_TUUpdatePortal.xls
- Oginska, H., Pokorski, J. (2006). Fatigue and mood correlates of sleep length in three age-social groups: school children, students, and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23(6), 1317-1328.
-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 (200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Retrieved from <http://health.gov/paguidelines/guidelines/>
- Strasburger, V. C., Jordan, A. B. & Donnerstein, E. (2010). Health Effects of Media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25(4), 756-767.
- Zentall, S., Goldstein, S. (1998). Seven Steps to Homework Success: A Family Guide to Solving Common Homework Problems. FL: Specialty Press. Inc.
-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Young Children (n. d.). Retrieved from <http://www.brightfutures.org/one-step/module-1/page-1-4.html>
- UK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2011, July 11).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physical-activity-guidelines>
- Your Guide to Healthy Sleep (2011).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nhlbi.nih.gov/health/resources/sleep/healthy-sleep>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한창근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주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원)

박태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조윤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I. 서론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의 심화, 청년 실업의 급증 등 복지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우리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명목 하에 복지예산의 확대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통한 다원화된 복지욕구의 충족은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자원을 통한 나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Schulz and Hafliger, 2007). 나눔이 단순한 자원마련의 차원을 넘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기제로 떠오르면서 나눔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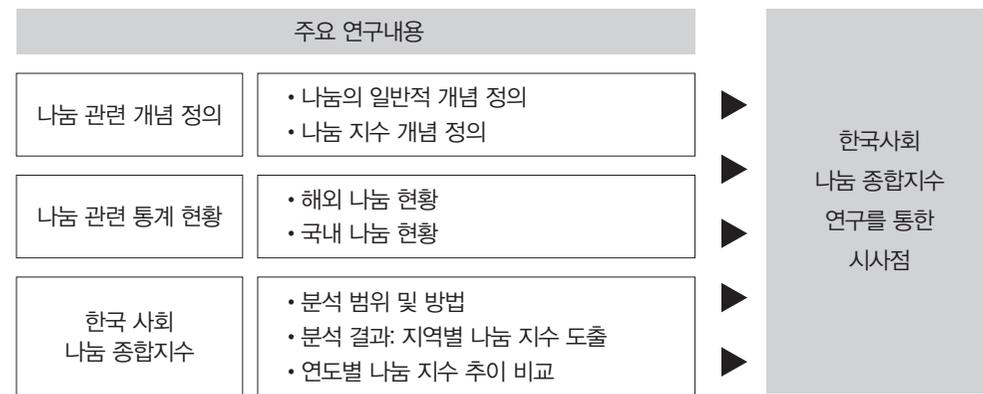
한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생성 및 축적의 한 측면으로서 자발적인 민간 나눔 자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나눔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나눔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눔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Giving USA'는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나눔에 관한 연구로서 국세청의 세금환급자료를 활용하여 기부주체 및 분야에 따른 다양한 나눔 실태를 연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UK Giving'은 자원원조재단(Charitable Aid Foundation)이 주체가 되어 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기부 참여율, 총 기부 규모추산, 그리고 국민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기부 수준의 변화를 매년 조사·발표함으로써 영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OECD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부·자원봉사·이웃 돕기를 포함한 친사회적행동(pro-social behavior)수준을 비교·평가하는 'Society at a

Glance'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민간 나눔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나눔의 규모와 수준, 그리고 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는 우리 사회 민간 나눔 자원의 규모와 종합적인 나눔 수준(지수)을 진단하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 중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전통적인 나눔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상호부조,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 그리고 공유 및 결합의 속성까지 고려한 한국사회 특유의 나눔 문화를 반영하여 그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 나눔의 특성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 나눔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향후 민간 나눔 자원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구성은 아래 [그림 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및 내용



II. 나눔 관련 개념 정의

1. 나눔의 일반적 개념 정의

나눔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분리 함,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거나 즐거움·고생 따위를 함께 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이러한 나눔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나눔을 이타적인 의도 및 행위로 해석하여 나눔 자체보다 나눔의 대상과 용도로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뜻으로 전이하여 사용(김형용, 2013)하면서 우리 생활의 일상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 그럼에도 나눔은 자선, 기부, 박애와는 달리 그 개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개념의 이론적 토대와 근원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김형용, 20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이는 나눔의 개념을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나눔에는 개인과 기업이 참여하면서 주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눔의 방식은 비영리단체 등을 경유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참여자가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나눔의 활동영역은 정부로 대표되는 제1영역과 시장이라는 제2영역이 있지만 비영리영역을 지칭하는 제3영역에서 나눔의 활동이 훨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나눔 활동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1). 지금까지 살펴본 나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통하여 개념정의를 정리하면 나눔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첫째, '왜 나누는가'로써 나눔의 목적에 해당된다. 관련된 용어로는 공공의 이익(public good), 인간의 복리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 이타적인 의도 등이며, 이를 통한 나눔이란 사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 모두의 이해, 즉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누가 나누는가'로써 나눔의 참여자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 및 단체라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주체가 등장하지 않는다(장영식 외, 2015). 그럼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제공'이라는 용어를 표기함으로써 나눔을 제공하는 특정 주체가 있음을 가정하기도 한다. 김형용(2013)은 나눔이 단순히 내 것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상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셋째, '무엇을 나눌 것인가'로써 나눔의 대상 즉 객체에 관한 것이다. 나눔의 대상은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나눔의 대상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어느

범위까지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떻게 나누는가’ 또는 ‘나눔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로써 나눔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가시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분배하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나눔의 행위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Barret-Ducrocq(2007)는 나눔의 행위가 나누고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합하고 공유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결합·공유로서의 나눔을 함께할수록 파이가 커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김형용(2013) 역시 나눔이 단순히 특정 주체가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주는 행위’에서 나아가 시민참여, 주고받는 것, 연대적 실천,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 상대방에 대한 인정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나눔 지수 개념정의

나눔 지수에 대한 개념정의에 앞서 나눔을 설명하는 접근을 먼저 살펴보면 크게 전통적인 접근법과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인 개념접근법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를 의미하는 자선(Charity)과 박애(Philanthropy)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배도, 2011). 자선은 인간적인 도리로서의 선행을 의미하며 종교적 의무를 기반으로 빈곤한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나눔을 행하는 것으로, 고통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배도, 2011). ‘타인, 공동체, 혹은 공공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내놓음’으로 정의되는 기부의 개념적 토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강철희 외, 2015). 박애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가치 있는 무엇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나눔의 개념과 많은 부분이 중첩된다고 할 수 있고, 자원봉사나 생명 나눔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약자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자선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배도, 2011).

나눔의 대안적 개념은 상호부조(mutual aid),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social network and engagement), 그리고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설명할 수 있다. 상호부조는 우리나라에서 경조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나눔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호혜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그동안 기부관련 연구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강철희 외, 2015). 그러나 쌍방향적으로 기부를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호부조적 기부(mutual-aid giving)의 형태에도 주목하고 있다(강철희 외, 2012).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촉진되는 다양한 도움을 의미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혹은 사회 내 공동체적인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기존의 사회적 자본의 성격과 달리 호혜적인 나눔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이 분배적 속성만 강조하여

결합 또는 공유로서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바탕으로 두 개념 모두 공유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호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안적 개념에 있어서 관계재의 경우는 동질성, 호혜성, 동시성, 동기, 발생적 현상, 무보수성, 재화 등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유로서의 나눔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적 틀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나눔의 전통적인 개념접근법과 대안적인 개념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나눔의 다양한 개념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회복지적인 의미의 나눔의 개념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가 아닌 박애·자선·기부 등을 모두 아우르는 확대된 범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배도,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눔을 ‘타인과의 직·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공익을 위해’, ‘사회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분배(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나눔은 시민들을 복지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하게끔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강철희 외, 2012). 이러한 나눔의 정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나눔 지수를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접근법에서 나아가 대안적인 개념을 포괄하여 개인 현금기부, 개인 물품기부, 법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가구 경조사비,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의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9가지 항목들을 기부지수(Giving Index), 핵심지수(Core Index), 부가지수(Expanded Index)의 세 가지 지표로 범주화하여 유형을 나누었다.

〈표 1〉 나눔 지수 구성 및 개념정의

		지수	지표	지수의 개념
부 가 지 수	핵심지표	기부	개인 현금기부	개인이나 단체가 현금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것
			개인 물품기부	
			법인 현금기부	
	핵심지표	자원봉사	개인 자원봉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
		생명 나눔	헌혈	나눔 주체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장기기증			
핵심지표	상호부조	가구 경조사비	개인들의 관계망 및 상호호혜성에 기반 하여 개인이 자선단체나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관계망속에 속한 다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전달하는 행동	
	핵심지표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연대를 통해 촉진되는 다양한 도움, 지역사회 혹은 사회 내 공동체적인(collective)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행위
단체참여				

자료: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2015)

Ⅲ. 나눔 관련 통계에 관한 기존연구들

1. 해외 연구

한국사회 나눔 지수를 도출하기 전에 나눔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통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의 「Giving USA」, 영국의 「UK Giving」과 「World Giving Index」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에 대한 비교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해외 민간자원 나눔연구

	Giving USA	UK Giving	World Giving Index
연구기관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	ONS/ CAF, NCVO	Charities Aid Foundation
연구범위	개인 및 기업	개인	국가
사용자료	국세청 자료 Foundation Center 자료	Omnibus Survey	3개 질문 전화 혹은 대면조사
주기	1년	1년	1년
대상	-	4,160명 (16세 이상)	160개 국가별 약 1,000명
참여율	-	79%	기부 37% 자원봉사 26% 이웃돕기 60%

「Giving USA」는 미국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에서 국세청 자료, Foundation Center자료, 그리고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자료 등을 활용한 통계현황 보고서이다. 기부금 공제확정 액을 바탕으로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를 가감하는 2단계의 선행(two-step ahead)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매년 개인, 기업, 유증, 재단의 현금 또는 현물 기부 활동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Giving USA는 기부를 '개인, 기업, 유산기부, 재단의 현금 또는 현물을 공익적 이유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Giving USA(2016)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기부총액은 3,733억 달러로 2014년 대비 4% 상승하였다. 기부주체별로는 개인기부가 2,646억 달러(71%)로 2014년 대비 3.7% 상승하였고, 재단 기부는 585억 달러(16%)로 2014년 대비 6.5% 상승, 유산 기부는 318억 달러(9%)로 2014년 대비 2.1%가 상승, 그리고 기업 기부는 184억 달러(5%)로 2014년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배분 분야로는 종교관련 기부가 1,193억 달러(32%)로 2014년 대비 2.6% 상승,

교육관련 기부가 575억 달러(15%)로 2014년 대비 8.8% 상승하여 기부금 배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휴면 서비스, 재단후원, 건강, 공익, 예술·문화·인문 분야 등에도 기부금 배분이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UK Giving」은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과 전국민간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가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실시하는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를 활용하여 '개인의 지난 1달과 1년 동안의 기부 및 사회활동'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UK Giving(2015)을 살펴보면 2015년 기부총액은 약 250억 파운드, 평균 37파운드로 나타났다. 16세 이상 개인 4,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기부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한 영국인은 79%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한 달간의 현금기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가끔(41%) 또는 매달(31%) 자선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65세 이상의 기부비율이 가장 높고 16세에서 24세의 기부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분야로는 아동분야(30%), 의학연구 분야(29%), 동물(22%), 병원·호스피스분야(20%)에도 많이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orld Giving Index(세계기부지수)」는 영국 자선지원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이 주관하여 2010년부터 매년 전 세계 16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조사·발표하는 국제비교연구이다. 조사를 위한 문항은 '자선단체에 금전적인 기부를 한 적이 있는가', '자선단체에 시간을 들여 도움을 으로 준 적이 있는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을 집계한 통계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겨 조사결과가 이루어진다. 세계기부지수(2016) 보고를 살펴보면, 140개 국가의 영역별 평균참여율은 기부 37%, 자원봉사 26%, 이웃돕기 60%로 나타났다. 기부는 5년간 평균참여율인 30%보다 7% 증가하였고, 자원봉사는 5년간 평균참여율인 22%보다 4% 증가하였다. 이웃돕기는 5년간 평균참여율인 51%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질문항목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와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상위 국가는 미얀마, 미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미얀마는 기부 영역에서 91%의 참여율을 보여 2014년 이후 3년 연속 기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었는데 세계기부지수 순위 75위(참여율 33%)로서 전년도(2014년)에 비해 참여율이 2% 감소하였고, 순위는 64위에서 75위로 1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돕기는 국가순위 93위(참여율 46%)로 전년도에 비해 참여율이 4% 감소하였고 순위도 74위에서 93위로 19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분야는 국가순위가 80위(참여율 18%)로 전년도에 비해 참여율이 3% 증가하였지만 순위는 17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기부 영역의 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이웃돕기와 자원봉사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의 기부지수

	세계기부지수		이웃돕기		기부		자원봉사	
	순위	참여율(%)	순위	참여율(%)	순위	참여율(%)	순위	참여율(%)
한국	75	33	93	46	46	35	80	18

2. 국내 연구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자원 나눔 관련 통계현황들을 살펴보았다. 「국세청의 통계연보」, 「Giving Korea 2015」, 「Giving Korea 2016」, 「통계청사회조사보고서」, 「서울서베이」, 「2016주요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2015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를 통해 결과를 파악하고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들 현황에 대한 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국내 민간자원 나눔 관련 통계현황

구분	기관	대상	주기	조사방법	조사 분야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근로·종합소득자, 법인	매년	전수자료 정리·집계	개인·법인기부금 신고현황
Giving Korea 2016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연구소	만19세이상 성인남녀2,500명	개인·기업 격년 조사	전화설문	전년도 개인·기업의 기부, 실태·현황·추이
Giving Korea 2015		매출액2000위 이내 기업 중 400개 기업		온라인 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	13세 이상 인구	2년	설문	기부여부(지난 1년간), 현금·현물기부, 기부희망분야, 향후 기부·유산 기부의사, 자원봉사활동 등
서울서베이	서울시	서울시 내 2만가구(15세이상 46,837명), 서울거주외국인 2,500명	매년	방문면접 (배포조사 병행)	서울시민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현황
2016주요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매출상위500대기업 및 전경련 회원사 등 총600개 기업	매년	설문	사회공헌규모, 실적 및 제도, 임직원 봉사활동현황, 대표사례 등

2015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대한상공회의소	매출상위501~1000대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견·중소기업 위원회 참여 기업(총544개)	매년	설문	사회공헌여부, 사회공헌비용, 사회공헌활동 이유 및 대표사례
---------------------	---------	---	----	----	----------------------------------

「국세통계연보」는 국세청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지원을 위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이며 국세청의 세법상 공제대상 기부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분류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4년 개인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는 근로소득자 5.15조원, 종합소득자 1.95조원으로 합계 7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법인 손금산입대상 기부금 규모는 4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대비하면 개인기부금은 감소한 반면, 법인기부금은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전 법인기부금이 전체 기부의 70%이던 것에서 최근 개인과 법인 기부비율이 6:4정도로 정착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 기부문화 확산 및 홍보와 기부관련세제 개선에 따른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는 개인 및 기업 기부지수를 격년으로 조사하여 「Giving Korea」를 발표하고 있다. 2016Giving Korea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기부지수 조사결과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45.6%, 전체 기부자의 58%가 국내외 사회복지 또는 자선분야에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해외구호 21.6%, NGO분야 10.1%, 지역사회발전 7.5%, 교육 4.6%, 의료 3.1%, 문화예술 0.4%의 순으로 기부참여를 보였다. 분야별 평균기부금액의 경우는 교육 분야가 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GO분야 152만원, 지역사회발전 47만원, 해외구호 30만원, 국내외 사회복지 또는 자선 28만원, 의료 26만원, 문화예술 23만원 순이었다. 2015Giving Korea자료를 통한 기업기부지수에서는 매출액 2000위 이내 기업중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한국기업의 평균사회공헌 참여율은 90% 수준이었고 200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금기부 87.4%, 자원봉사 79.6%, 현물기부 68.6%순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금 기부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현물 및 자원봉사의 경우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4년 기업 평균기부액은 277,117백만 원으로 조사되어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조사·발간되는 보고서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한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은 29.9%로 2013년에 비해 4.7%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기부금액은 남성이 약33만7천원, 여성이 약2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부실태에 있어서는 남성이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연령과 대졸이상의 학력에서 기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부회사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연령과 대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여성이 경험과 봉사시간 모두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연령과 중졸교육수준에서 참여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에 대하여 시민의견으로 전반적인 서울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하는 보고서이다. 2016년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6,837명) 및 서울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민의 기부행동 변화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와 기부현황을 묻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부율은 2015년 41.7%로 2014년 46.9%보다 낮았고 자원봉사참여율은 2015년 12.3%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기부유형은 ARS 23%, 현금직접기부 13.3%, 물품기부 3.6%, 온라인송금 6.6%, 포인트기부 4.8%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및 기업재단이 사회공헌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발간하는 보고서로써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전경련 회원사 등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기업사회공헌 실태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기업 중 주요기업 255개사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사회공헌규모는 2조9,020억 5,073만 원으로 2014년 대비 6.8% 증가한 규모이다. 응답기업의 2/3가 사회공헌지출을 늘리거나(53.3%) 전년 수준을 유지(13.3%)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대비 25% 이상 사회공헌 지출을 늘린 기업도 전체의 2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기업재단 62개가 2015년 한해 지출한 사회공헌규모는 3조 3,903억 7,645만 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하였다. 이는 대형 재단들의 사회공헌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증가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대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2015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1~1,000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참여기업 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1.9%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3년(53.8%)대비 18.1%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과 건설업종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과 세전이익이 높은 업체일수록 참여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2014년 한 해 지출한 사회공헌지출액은 약 423억 원으로 2013년(264억)에 비해 159억 원 증가하였다. 현금기부 비중이 2013년 82.2%, 2014년 6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나눔 종합지수

1. 분석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사회 나눔 지수를 17개 시·도의 지역별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2011년·2013년·2015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다. 분석단위는 나눔 지수를 구성하는 9개 항목 중 현금기부, 물품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사회관계망, 단체참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며 법인 현금 기부는 기업을, 그리고 경조사비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다. 이들 항목들은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로 범주화된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현금기부, 자원봉사, 사회관계, 단체참여 항목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를, 물품 기부는 전국 푸드뱅크 기부통계자료를, 법인 현금 기부는 KisValue와 기업공시자료 및 FN데이터를, 헌혈과 장기기증은 각각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를, 그리고 경조사비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9개 항목별로 지역 및 전국 평균값을 구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한 후, 자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지역 및 전국 평균값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기초데이터 값에 보정상수를 적용하여 지역 간 최대-최소 표준화 값을 구하게 된다. 이후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에 대한 나눔 종합지수를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9개 항목별 표준화 작업과 기부·핵심·부가지수로 범주화되는 유형별 나눔 지수는 17개 지역 및 3개년도별로 각각 산출하게 된다. 이때 항목별 표준화 작업은 지역 최대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최대·최소지역 값의 차이로 나누어 모든 지역 값을 비교가능한 표준화 값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포함 지역별 최대-최소 표준화 값은 10점(최고)부터 1점(최저)까지의 범위 중에 해당 지역이 어느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3개 유형별 나눔 지수는 먼저 기부지수에 각 1점의 가중치를, 핵심지수에는 0.5점의 가중치를, 그리고 부가지수에는 각각 0.2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2011년도 지수 값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2013년과 2015년의 지수 값을 비교하여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연도별 객관적 비교를 위하여 보정 값(보정상수)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보정상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다음 년도의 표준화된 지역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감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써 현금단위 측정항목은 당 해 년도 물가상승률과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아래 <그림 2>은 나눔 종합지수 산출방식을 알기 쉽도록 지수도출의 계산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나눔 종합지수 도출 방식



2. 분석 결과

분석결과에서는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최대-최소 표준화점수의 산출결과와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나눔 종합지수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2011년도 최대-최소 표준화 수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현금 기부는 서울(최대)/대구(최소), 개인 물품 기부는 충북(최대)/경남(최소), 기업기부는 울산(최대)/광주(최소), 개인 자원봉사는 대전(최대)/서울(최소), 헌혈은 서울(최대)/경기(최소), 장기기증은 울산(최대)/강원(최소), 경조사비는 충남(최대)/제주(최소), 사회적관계망은 제주(최대)/강원(최소), 그리고 단체참여는 충남(최대)/경남(최소)로 나타났다.

<표 5> 2011 항목별 최대-최소 표준화점수

	1인당 기부 (원)	1인당 물품 (원)	법인당 기부 (원)	1인당 자원봉사 (원)	1,000명 당 헌혈 (건)	100만명 당 장기 기증(원)	가구당 경조사비 (원)	네트 워크 (점)	단체 참여 (%)
서울	10.00	9.29	3.00	1.00	10.00	9.30	6.78	5.90	6.84
부산	3.78	2.73	1.37	7.75	6.63	7.79	4.29	3.60	6.75
대구	1.00	4.46	1.77	5.28	4.12	6.47	3.33	4.24	3.90
인천	1.18	5.38	2.26	4.17	6.74	9.89	7.00	3.00	5.38
광주	4.22	5.98	1.00	4.50	6.17	6.18	5.42	5.64	8.28
대전	4.31	8.59	2.14	10.00	5.47	6.55	4.05	4.07	7.88
울산	4.18	2.97	10.00	4.71	7.08	10.00	4.84	3.05	8.37
세종									
경기	4.30	3.07	2.99	2.60	1.00	6.92	6.44	6.17	7.67
강원	4.72	4.78	3.99	9.77	6.51	1.00	8.73	1.00	5.18
충북	2.73	10.00	1.05	2.61	6.22	3.74	1.73	2.20	5.36
충남	3.73	3.90	2.06	4.42	5.47	2.28	10.00	4.66	10.00
전북	6.14	6.13	1.23	3.70	7.44	6.73	9.63	5.18	6.82
전남	3.01	6.98	3.89	7.06	6.17	5.13	7.41	6.81	6.25
경북	3.97	7.56	2.28	6.25	4.12	4.92	6.91	4.18	6.42
경남	2.64	1.00	1.75	3.81	3.40	1.13	6.73	2.47	1.00
제주	7.72	3.61	1.95	4.92	6.53	2.34	1.00	10.00	7.79
전국	4.98	5.42	2.77	3.96	5.42	6.56	6.37	4.87	6.54

2013년도 최대-최소 표준화점수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현금기부의 경우 대전(최대)/울산(최저), 개인 물품 기부는 충북(최대)/제주(최소), 기업 기부는 경기(최대)/충북(최소), 개인 자원봉사는 대전(최대)/전북(최소), 헌혈은 서울(최대)/경기(최소), 장기기증은 울산(최대)/충남(최소), 경조사비는 울산(최대)/충북(최소), 사회적관계망은 대전(최대)/인천(최소), 그리고 단체참여는 광주(최대)/경북(최소)를 기록하였다. 2011년도 수치와 비교하여, 최대-최소지역이 모두 변화한 항목은 개인 현금기부, 법인 현금기부, 경조사비,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 5개 항목이었다. 개인 물품 기부는 충북이 2013년도 조사에서도 최대지역이었고, 최소지역만이 변화되었다. 자원봉사는 대전이 2013년도 조사에서도 최대지역으로 나타났고, 최소지역만이 변화되었다. 헌혈은 서울과 경기도가 최대-최소지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장기이식은 울산이 2013년도 조사에서도 최대지역으로 나타났고 최소지역이 변화되었다. 현금기부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나눔 행동을 대표하는 기부지수항목들은 최대지역에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현금기부와 핵심 및 부가지수 구성항목은 2011년도와 2013년도 조사에서 최대-최소지역이 모두 변화를 보였다.

<표 6> 2013 항목별 최대-최소 표준화점수

	1인당 기부 (원)	1인당 물품 (원)	법인당 기부 (원)	1인당 자원봉사 (원)	1,000명 당 헌혈 (건)	100만명 당 장기 기증(원)	가구당 경조사비 (원)	네트 워크 (점)	단체 참여 (%)
서울	9.16	10.79	6.04	3.78	11.04	6.42	8.95	6.91	4.56
부산	4.87	4.10	2.65	5.54	7.28	6.58	4.12	3.84	2.43
대구	2.50	6.06	2.62	4.08	5.31	5.19	5.83	6.72	2.94
인천	8.28	4.61	1.97	6.19	6.83	1.34	7.35	0.89	2.94
광주	4.63	9.01	1.05	5.99	6.82	7.50	5.42	8.92	10.16
대전	10.92	10.67	6.09	11.22	6.62	1.92	3.45	9.89	6.95
울산	1.92	2.77	6.23	7.70	7.76	10.03	9.65	4.33	4.56
세종									
경기	7.55	5.37	10.00	7.11	2.04	6.52	8.16	3.05	4.46
강원	7.96	5.37	7.76	5.68	8.60	5.22	7.71	4.56	5.07
충북	3.55	10.95	1.00	7.53	6.86	3.90	0.65	2.08	3.68
충남	7.89	3.71	2.48	8.50	6.62	1.03	5.77	2.90	6.47
전북	5.50	5.29	1.36	2.22	7.86	4.87	5.54	4.35	1.40
전남	7.72	8.10	2.42	9.07	6.82	3.70	7.34	2.82	2.46
경북	5.90	6.16	4.40	3.30	5.31	3.08	8.03	2.00	1.16
경남	8.38	2.71	3.13	8.97	4.64	4.14	8.75	5.34	5.04
제주	9.16	1.95	2.07	5.85	6.55	8.15	1.96	6.29	2.49
전국	7.19	6.53	5.55	6.06	6.33	5.28	7.20	4.53	4.16

2015년도 최대-최소 표준화 값을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현금기부의 경우 경남(최대)/대구(최소), 개인물품 기부는 강원(최대)/세종(최소), 기업 기부는 강원(최대)/세종(최소), 개인자원봉사는 제주(최대)/전북(최소), 헌혈은 전남(최대)/경기(최소), 장기기증은 대구(최대)/충남(최소), 경조사비는 강원(최대)/제주(최소), 사회적관계망은 전남(최대)/제주(최소), 그리고 단체참여는 제주(최대)/전북(최소)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조사에서 최대-최소지역이 모두 변화를 보인 항목은 개인 현금기부, 법인 현금기부,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단체참여의 4개 항목이었다. 개인물품 기부는 2011년과 2013년도 조사에서는 최대지역이 동일하고 2015년도 조사에서 최대-최소지역이 모두 변화하였다. 개인 자원봉사는 대전이 2011년도와 2013년도 조사에서 최대지역이었으나 2015년도 조사에서 최대지역이 제주로 변화하였고 최소지역은 2011년도는 서울이었으나 2013년·2015년도에는 전북으로 나타났다. 헌혈은 최대지역이 2011년도와 2013년도에는 서울이었으나 2015년도에서 전남으로 변화하였고, 최저지역은 경기로서 세 개년도 모두 동일하였다. 장기이식은 울산이 2011년·2013년도 조사에서는 최대지역이었고 충남이 2013년·2015년도 최소지역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는 최대지역이 2011년~2015년까지 모두 다르게 나타났지만 최소지역은 제주지역으로 세 개년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헌혈에서 경기지역이 2011년~2015년도 조사모두에서 최소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현금기부를 제외하고 기부지수의 4가지 항목은 최대-최소지역이 약간의 변화만을 보이면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최대-최소지역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 및 부가지수 그리고 현금기부항목들이 2011년~2015년까지의 조사에서 최대-최소 지역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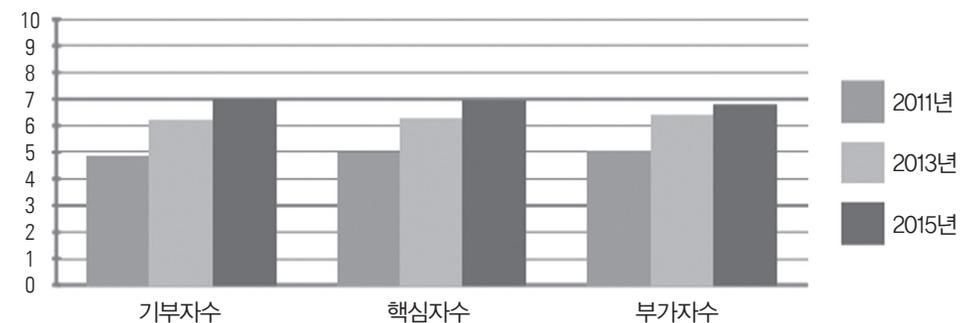
〈표 7〉 2015 항목별 최대-최소 표준화점수

	1인당 기부 (원)	1인당 물품 (원)	법인당 기부 (원)	1인당 자원봉사 (원)	1,000명 당 헌혈 (건)	100만명 당 장기 기증(원)	가구당 경조사비 (원)	네트 워크 (점)	단체 참여 (%)
서울	13.94	7.22	6.31	6.22	10.60	7.48	6.91	6.50	5.35
부산	5.19	3.23	1.85	6.38	7.10	10.00	1.75	3.50	1.16
대구	4.97	3.18	2.82	7.82	10.44	10.70	4.74	2.38	1.51
인천	7.08	4.09	2.23	11.95	6.58	6.04	5.65	6.88	1.73
광주	6.97	5.58	1.32	7.93	6.88	3.53	3.56	9.50	3.65
대전	12.43	7.46	6.49	10.86	6.98	5.41	2.41	5.00	6.82
울산	11.79	2.41	2.82	10.18	8.22	9.58	5.27	3.13	5.98
세종	9.48	1.35	0.43	9.55	6.98	5.58	2.65	5.00	9.16
경기	8.65	4.31	8.76	8.22	2.51	6.84	8.75	5.75	5.45
강원	10.07	10.35	9.43	13.22	9.75	5.05	9.29	6.13	7.70
충북	5.90	7.40	0.45	11.86	6.64	9.05	1.94	2.38	7.60

충남	7.11	3.66	1.04	10.07	6.98	1.70	4.54	2.38	3.98
전북	5.50	7.05	0.50	4.81	7.18	5.66	5.90	5.00	0.17
전남	7.72	4.39	5.10	12.27	11.51	7.53	6.56	10.25	8.94
경북	6.20	3.81	4.40	5.14	5.48	6.98	5.46	1.25	5.05
경남	13.97	2.24	2.67	12.94	4.59	8.08	6.74	6.88	6.16
제주	11.58	1.72	6.41	13.81	6.92	5.48	0.29	2.75	9.17
전국	9.33	4.97	5.38	8.57	6.38	7.11	6.16	5.38	4.82

전국 단위의 값을 기준으로 2011년, 2013년, 2015년 지수 값을 비교해보면, 기준년도인 2011년에 비하여 2013년의 지수 값들은 기부지수 1.31점, 핵심지수 1.27점, 그리고 부가지수 1.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하여 2014년의 지수 값들은 기부지수 2.11점, 핵심지수 1.93점, 그리고 부가지수 1.75점 상승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비하여 2015년의 지수 값들은 기부지수 0.8점, 핵심지수 0.66점, 그리고 부가지수 0.36점 각각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준년도(2011년)에 비하여 2013년과 2015년에 지속적으로 나눔 지수들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다만 2013년도 상승폭보다 2015년에는 많이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그림 3〕 2011·2013·2015 나눔 종합지수



연도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1년(기준연도)에는 서울이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 모두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경남이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기부지수의 경우 대전과 대구가 최대-최소지역으로, 핵심지수의 경우 서울과 대구가 최대-최소지역으로, 그리고 부가지수의 경우 대전과 전북이 최대-최소지역으로 변화를 보였다. 대전(기부지수와 부가지수)과 대구(기부지수와 핵심지수)는 두 개 지수에서 최대-최소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는 2011년도와 같은 패턴을 나타내면서 최대-최소 지역이 모든 유형의 지수에서 동일하였는데 강원과 충남이 최대-최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강원지역이 2011년 및 2013년도에는 전국 평균값에 비슷하게 머물고 있다가 2015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강원지역은 기부지수 항목(6개)에서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분석 값이 모두 전국 평균값을 웃도는 수치를 꾸준히 보이면서 나눔 종합지수 2015년도 분석결과에서 최대지역으로 나타났다.

3.연도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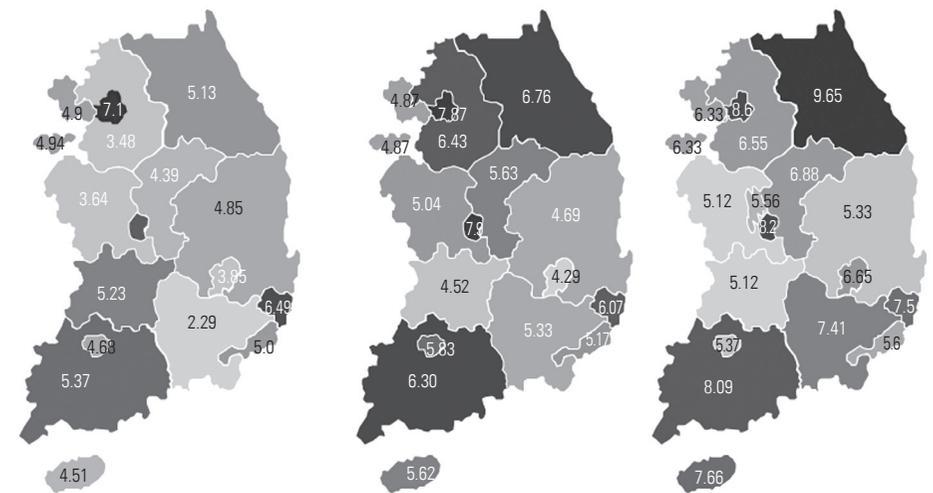
연도별 추이비교를 살펴보면, 먼저 기부지수의 경우 서울·대전·전남은 세 개년도 모두 기부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충남·대구는 모두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제주는 시점이 지날수록 기부지수가 상승하는 지역이었으며 부산은 세 개 시점 모두 중간수준의 기부지수를 보였다. 핵심지수를 중심으로 패턴을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이 세 개년도 모두 핵심지수가 높게 유지되고 있었고 강원·경남·제주는 시점이 지날수록 핵심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상승과 감소의 변화를 보이면서 핵심지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부가지수를 중심으로 한 패턴분석을 살펴보면, 서울·대전·울산이 세 개 년도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지수를 나타내었다. 경남이 시점이 지날수록 부가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경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경남과 함께 강원지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서울지역은 최대-최소 순위에서 약간의 변동은 보이지만 모든 지수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상위에 랭크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도별 나눔 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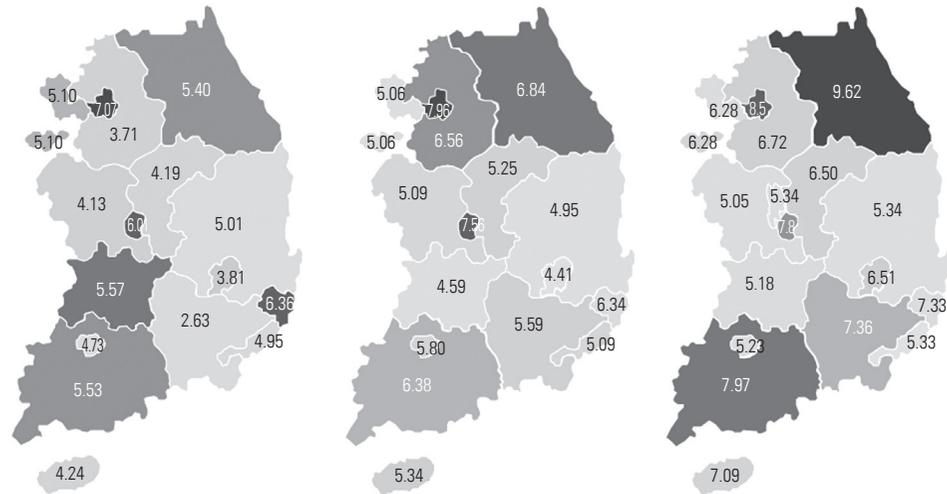
지역	2011년(기준연도)			2013년			2015년		
	기부 지수	핵심 지수	부가 지수	기부 지수	핵심 지수	부가 지수	기부 지수	핵심 지수	부가 지수
서울	7.1	7.07	7.02	7.87	7.96	8.21	8.63	8.5	8.31
부산	5.01	4.95	4.97	5.17	5.09	5.17	5.63	5.33	5.11
대구	3.85	3.81	3.83	4.29	4.41	4.79	6.65	6.51	6.18
인천	4.94	5.1	5.03	4.87	5.06	4.97	6.33	6.28	6.14
광주	4.68	4.73	4.89	5.83	5.8	6.75	5.37	5.23	5.33
대전	6.18	6.01	6.01	7.9	7.56	8.22	8.27	7.82	7.68

울산	6.49	6.36	6.32	6.07	6.34	6.52	7.5	7.33	7.13
세종	-	-	-	-	-	-	5.56	5.34	5.46
경기	3.48	3.71	3.94	6.43	6.56	6.63	6.55	6.72	6.64
강원	5.13	5.4	5.24	6.76	6.84	7.04	9.65	9.62	9.43
충북	4.39	4.19	4.16	5.63	5.25	5.28	6.88	6.5	6.4
충남	3.64	4.13	4.36	5.04	5.09	5.4	5.09	5.05	4.92
전북	5.23	5.57	5.6	4.52	4.59	4.68	5.12	5.18	4.99
전남	5.37	5.53	5.6	6.3	6.38	6.31	8.09	7.97	8.08
경북	4.85	5.01	5.03	4.69	4.95	4.82	5.33	5.34	5.19
경남	2.29	2.63	2.56	5.33	5.59	5.94	7.41	7.36	7.3
제주	4.51	4.24	4.57	5.62	5.34	5.59	7.66	7.09	7.01
전국	4.85	4.97	5.02	6.16	6.24	6.41	6.96	6.9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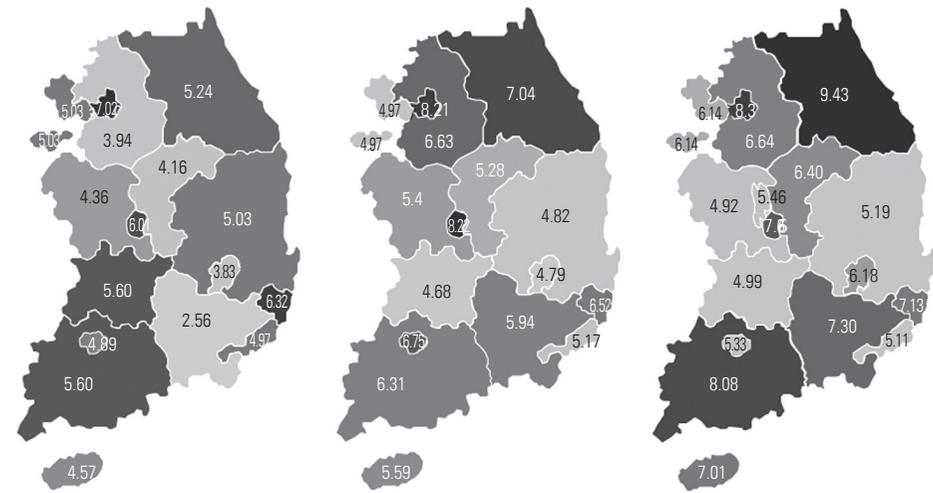
〈그림 4〉 2011·2013·2015 기부지수



〈그림 5〉 2011 · 2013 · 2015 핵심지수



〈그림 6〉 2011 · 2013 · 2015 부가지수



V. 결론 및 제언

나눔 종합지수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나눔 행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제시하는 것과 함께, 연도별 지표변화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나눔 지수 도출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2015년의 경우 세종시 추가되어 17개)로 나누어 각 지역별 나눔 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으로 분석된 값에 대한 추이도 비교가능 하도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정상수 적용 후 2011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5년도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가 전국단위에서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부지수의 경우 2011년 4.85에서 2015년 6.96으로, 핵심지수의 경우 2011년 4.97에서 2015년 6.9로, 그리고 부가지수의 경우 2011년 5.02에서 2015년 6.77로 각각 상승하였다. 둘째, 나눔 지수의 지역별 차이 및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나눔 지수의 모든 항목들에서 강원이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고, 충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및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많은 지역에서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1년과 2015년 비교를 한 결과, 경남과 경기지역의 세 가지 유형의 나눔 지수 모두에서 기준년도(2011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변화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전북은 기준년도에 비하여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5년도 지수 간 비교에서는 광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2013년도에 비하여 모든 지수에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강원지역이 세 가지 지수 모두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 종합지수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첫째, 나눔과 관련된 개념적 논의를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9개 지표의 선정 및 각 지표에 대한 측정방법들을 고안하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파악하여 구성하는 과정은 나눔 지수의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나눔 종합지수 연구를 통해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나눔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9개 항목을 이용하여 세 가지 나눔 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은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나눔 지수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나눔 종합지수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첫째, 나눔 지수의 전반적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나눔 실천 현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나눔 지표들을 이용하여 나눔 지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나눔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나눔 지수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결과는 지역 단위별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격려 및 분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눔 종합지수 도출 및 경향성에 대한 연구결과

나눔이 향상된 지역의 경우 나눔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긍정적 강화가 필요할 것이고, 나눔이 감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나눔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들에 대한 구상 및 실행을 가능케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눔 지수의 각 지표들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나눔 문화의 각 측정 지표들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나눔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눔 종합지수 연구는 한국 상황에서 다양한 나눔 지표들을 이용하여 나눔 지수(기부 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를 선정하고 또한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전국 단위에서 조사시작 연도인 2011년 이후 2013년, 2015년에 세 가지 모든 나눔 지수에 있어서 긍정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지역에서 나눔 지수의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물론 조사비교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북과 광주 지역 경우 나눔 지수가 기준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나눔 종합지수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나눔 지수의 분석은 상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나눔 지수의 구분을 재구성하여 나눔 지수의 특성 및 경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눔 지수의 경향성 분석은 장기적인 follow-up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2년 단위로 조사되는 나눔 종합지수연구의 경우 한국사회의 나눔 경향을 좀 더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나눔 지수를 통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더하여 나눔 지수의 높은 상승 또는 하락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경우 지역별 심층연구를 진행하여 높은 상승 및 감소를 보이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눔 지수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눔 지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나눔 지수의 경우 지표별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정확한 나눔 지수 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눔 지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타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작업의 실시, 그리고 데이터의 구축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한 나눔 지수 도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김계정·허영혜(2012).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다양한 형태의 기부행동간 연관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39(1), pp.163-197.
- 강철희·유재윤·박소현(2012). "기부와 자원봉사에서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2), pp.273-298.
- 강철희·한건우·김미희·이경혜·김성준·김태현·유지은(201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강철희·편창훈·오장용(2015). "가구 단위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의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2(2), pp.195-226.
- 김형용(2013).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 소비주의 나눔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pp.205-230.
- 배도(2011).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국비영리연구』 10(1), pp.39-70.
- 통계청(2011). 『나눔통계 개선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4).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 _____ (2015).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트 분석』.
- Barret-Ducrocq, F(2007). 김혜연(역) 『나눔. 너와 나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솔.
- Charities Aid Foundation(2015). 『UK Giving』.
- _____ (2016). 『World Giving Index』.
- Giving USA Foundation(2016). 『Giving USA』.
-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 Schulz, T. & Halfiger. U. (2007). "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Volunteering Analyzing Social Policy Effects at the Sub-National Level in Swizerland". CINEFOGO Conference, Berlin.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

박란희 이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김상욱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이현승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2팀)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1

비영리 인덱스, 더 쌓아야 한다.

박란희 이사(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비영리 인덱스, 더 쌓아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비영리의 나눔 현장을 취재하러 출장을 가면, 가장 먼저 PPT에 등장하는 게 자신들의 기부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다. 전체 기부총액, 분야별 기부현황, 연도별 기부총액 증감 등에 관한 개론이 등장한다. 국세청 ‘기빙USA’나 ‘UK 기빙’ 등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도 있고, 영국 CAF(자원원조재단)의 ‘세계기부지수’처럼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우도 있다. 필란트로피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여서인지, 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조사가 활발하다. 반면, 한국에선 지난 20년 사이 모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모금액 순위로만 보면 글로벌 톱 5위권 내에 드는 NPO들이 수없이 등장했음에도, 기부나 비영리 관련 인덱스나 통계도 부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분석도 많지 않다. 키는 훌쩍 자랐는데, 펀더멘털(기초체력)은 부족한 성장기 청소년 모습 같다.

비영리 인덱스, (대중) 관심의 시작이다

최근 가이드스타 미국 데보라 부대표를 인터뷰했는데,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20년 전 미국 가이드스타가 문을 열었을 때, 언론이 가장 좋아했다. 포브스에서 항상 ‘톱 10 비영리단체’를 내놓으라고 성화였다. 반면, 한 언론사에서는 틈만 나면 ‘A비영리단체, 불투명하다’며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반면 비영리단체에선 경쟁 단체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니 다들 싫어했다. 양쪽 모두에게 교육을 시켜야 했다.”

언론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데이터다. 아무리 사례가 많아도, 관련 내용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으면 언론사로부터 절대 제대로 된 기사 대접을 받지 못한다. 처음 ‘더나은미래’ 편집장을 맡았을 때도, 가장 먼저 비영리와 기부, 사회공헌 관련 현황 데이터를 찾았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많은 출입처를 경험했는데, 이 분야만큼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곳은 처음이었고 깜짝 놀랐다. 예를 들면, 국내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를 쓴다고 치자. 경찰청의 교통사고 현황데이터, 국토교통부 연구원의 교통사고를 둘러싼 통계와 연구자료, 생명보험사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한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에서 쌓고 있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분석 자료가 무척 많다. 반면, 비영리 영역에선 이런 자료가 드물었다.

최근 국내 공익법인에 관한 국세청 공시자료를 분석한 모 언론사 기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관련 기사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결국 이 같은 기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분석할 만한 데이터가 쌓인 덕분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자료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현재의 비영리 인덱스, 잘해왔지만...

기부 관련 자료로 늘 등장하는 건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 12조원이라는 내용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자료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빙코리아' 데이터, 뒤늦게 등장한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등도 많이 인용되어온 자료들이다.

이번에 발제된 모금회의 '나눔 종합지수'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눔과 관련해 9가지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발전시켜 나눔지수까지 개발한 점이 향후 주목할 만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지수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동문제 제기의 출발점으로 볼 만 하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빙코리아 또한 표본모수를 늘리고 새로운 설문항목을 늘려 향후 추적조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기대가 된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인덱스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각각의 인덱스마다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에 대한 불신이 많아 이 같은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원하는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각종 비영리 중간지원기관들이 평가도 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드보커시 활동도 한다. 한국에도 민관이 힘을 합쳐 비영리 관련 대표 인덱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비영리 인덱스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는 점

미국에서 '더 나은미래'와 비슷한 매체로 '클로니컬 오브 필란트로피(Chronicle of Philanthropy)'가 있는데, 이곳에선 항상 '미국의 톱 100위 기부자'와 같은 기사를 발표한다. 개인별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화제가 된다. 반면, 한국에선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기부에 관한 개인별 데이터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부금에 관한 디테일한 분석 자료도 필요하다. 전경련이 발표한 250대 대기업 기업기부금(사회공헌 액수)는 3조원 가량 되는데, 더 나은미래가 상장기업 1800곳의 공시자료에 표기된 기부금을 합쳐보니 1조원 가량 차이가 났다.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의

한계, 기부금에 포함되는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탓이다.

비영리중간지원기관인 한 단체는 몇 년간 해오던 연구조사를 중간에 포기했다. 이사진들의 반대 때문이다. "매년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왜 하느냐"고 계속 반대했다고 한다. 연구조사는 당장 모금에 도움을 주지도 않고, 당장 해당 비영리단체를 빛내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부족하면, 나중에 비영리 전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산이 없어 비를 흠뻑 맞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비영리 투명성 이슈가 제기된 것도 이 같은 문제다. 비영리 스스로 데이터, 연구조사, 인덱스 등에 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일지 모른다. 비영리는 인덱스를 더 쌓아야 한다.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2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문

김상욱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기획 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문

금번 발표되는 3편의 연구결과들--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송헌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정익중) / 한국사회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한창근 등)--은 공히 기부, 아동권리, 나눔 등 다분히 공익적인 주제와 관련한 정교한 계량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학계의 접근방식이 학술적(academic)이기보다는 다분히 정책적(policy-oriented)이고, 비록 학술적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보다는 담론(discourse)에 치우치며, 계량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일원 혹은 이원 분석(uni- or bi-variate analysis) 등 초보적 단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금번 연구결과들은 정교한 계량분석 및 각종 지수의 산출을 적극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연구지평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 및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개괄적·거시적 한계 혹은 개선점이 아래와 같이 여전히 적시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차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가일층 원숙한 학술적·분석적 연구결과물의 산출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의 목적이 학술연구 그 자체인 경우는 물론이요 실천적 사회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연구의 경우에도 굳건한 학술성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 비로소 기반이 튼실해질 수 있다는 원론적 언명(dictum)을 상기할 때, 원숙한 학술연구결과물의 산출은 장차 기부행위, 아동권리, 나눔 등과 관련한 실천적 사회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론적·학술적 근거(theoretical, academic underpinnings): 무릇 지수(index) 혹은 척도(scale)의 구성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에 대한 일목요연한 수치의 제시를 통해 가시적·직관적 이해를 돕는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지니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학계에서는 물론이요 정관계, NGO, 언론계 등 사회저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수 구성(index construction)을 시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고려사항은 다름 아닌 학술적·이론적 근거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칫 이것이 결여 혹은 부족할 경우 구성된 지수는 마치 뿌리 없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학술적 근거가 미비 혹은 배제된 상태에서 부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견지에서 두 연구(아동권리지수, 나눔종합지수)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전자(정익중)의 경우 ‘아동균형생활시간’이라는 잠재변인(latent variable)을 구성하는 4대 영역(domains)으로 수면, 학업, 운동, 미디어를 제시하면서 각 영역의 근거(measurement 관련)를 세부적으로(NSF, 호주 보건부, 미국 소아과협회 등)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인 “4대 domains의 이론적/경험적 근거(즉, 기존 연구를 통해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영역이 명시되었으며 그와 관련한 이론적·개념적·조작적 연구결과물들(evidence)은 어떠한지?)”는 달리 제시하고 않고 있다. 다음으로 후자(한창근 등)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나눔에 관한 종합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두 9가지 지표들(개인 현금기부, 개인 물품기부, 법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가구 경조사비,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을 바탕으로 3대 지수--기부지수(Giving Index), 핵심지수(Core Index), 부가지수(Expanded Index)--를 구성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지표들 및 지수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Plus, 3대 지수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상이한 weights(1, .5, .25)의 근거 또한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져있음). 두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문제(한계)상황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논평자의 과문? 발표자의 누락? or something else?) 현재로서 알 수가 없으나, 통상 특정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핵심적 영역(domains) 및 지표(indicators)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는 문제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로서, 자칫 연구자의 자의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국제적 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및 비교등가성(comparative equivalence)의 문제: 상기 이론적·학술적 근거와 밀접히 연관된 또 하나의 핵심적 고려사항은 금번 국내에서 구성(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는 지수(index) 혹은 지표(indicators)가 국제적 견지에서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국제비교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하히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일지라도 그것이 단지 국내에서만 stand-alone하는 방식으로 구성(진행)될 경우 그 의미는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음은 가히 주지의 사실에 속한다. 어찌 보면 명확한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요구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핵심적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 표준화 및 비교등가성의 확보에 있다고도 보아야 한다. 모름지기 기부행위, 아동권리, 나눔 등과 같은 사안과 관련한 지수구성 학술적 노력(시도)이 그동안 국내에서보다는 구미 등지의 해외에서 더 깊이 있고 방대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본다면, 해외의 우수 방법론적 연구성과들을 선제적(preemptive)으로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도입·결합·비교하려는 시도가 경주될 경우에 비로소 차후에 생산될 국내 연구결과들에 대한 국제적 비교 및 표준화가 십분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수의 타당화(validation) 연구: 본시 특정한 지수의 새로운 구성(construct)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성된 지수의 측정속성(measurement properties)으로서의 신뢰도, 타당도 등이 과연 어떠한가?”를 종합적·총체적(comprehensive and summative)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타당화 노력’(validation efforts) 혹은 ‘타당화 연구’(validation studies)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어찌 보면, 금번 발표된 연구들은 여전히 시발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excuse해볼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 견지에서 제언하건대 차후 엄정한 구성(construction)에 연이어서 면밀한 타당화 연구를 적극 시도함으로써 구미를 중심으로 시시각각 발표되고 있는 타당화 연구결과들과 대비시킨 한국사회의 동질성(homogeneity) 및 이질성(heterogeneity)과 관련한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적인 비교 결과를 본격적으로 추동할 필요가 크다(정익중의 연구에서는 predictor & outcome variables를 포함시키는 방식의 분석이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4) 할당표집(quota sampling)의 문제: 전술한 문제들보다는 다소 minor할 수 있으나 금번 발표된 세 가지 연구들 가운데 기존자료에 대한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을 시도하는 연구(한창근 등) 이외에 직접 자료수집을 시도하는 두 연구(송헌재, 정익중)의 경우 할당표집이라는 특정한 표집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할당표집기법이 적잖이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은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이 아닌 비확률표집(non-prob. sampling)으로 분류됨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무릇 할당표집은 주요 사회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들(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과 관련한 표본에서의 확보비율을 모집단의 인구비례(PPS)로 정확히 맞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정교한 듯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표집의 마지막 단계(final phase of the sampling selection)에서 상당한 정도의 오남용(misuses and abuses)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그로 인해 무응답오류(non-response bias)가 체계적(systematic, not random)으로 발생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할당표집이 비확률표집으로 분류되는 핵심적 이유인데, 혹자는 사후적 보정작업(ad-hoc or post-factum adjustments)(예, weights 부여 등)을 통해 수정·보완될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항변할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따름이지 최선의 선택일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2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종합토론문

이현승 팀장(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2팀)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포럼 토론문

비영리 활동가이자 모금가라면 다양한 나눔, 기부에 대한 자료, 도서를 참고하여 기부시장 및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금전략, 더 나아가 단체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많은 기부와 모금에 대한 분석 및 현황 자료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사방법, 조사분야, 조사기관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 객관성 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포괄적인 나눔과 기부에 대한 분석이 되는 중복, 쏠림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 모금가로서 향후 좀더 비영리조직의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갈증해소를 기대하면서 제안하고자 한다.

미래예측을 위한 특화된 기부분석 자료의 필요성

여러 조사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내놓는 분석자료 들은 대부분 과거의 흐름을 분석하여 현황을 내놓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라는 것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지다 보니 어쩔 수 없겠으나 자료를 소비하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차별화나 특화된 자료가 아니라 대부분 전반적인 기부에 대한 수치 자료 분석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한다. 해서 미래를 내다 보고 예측을 위한 보완을 위해 현재 비영리 기관들이 핵심 틈새 시장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분야별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첫째, 기부스케일(Funding Scale) 및 기부채널에 대한 전문분석 자료 필요성

예를들면, 고액후원/중저액후원 분야 (Major Donor, Middle Value Donor)를 기부연령, 기부방법, 기부패턴 등 세부적인 기부분석을 통해 전문가 그룹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 기부단체들의 후원유입 경로에 대한 향후 예측은 어떻게? 현재 대면, Digital(온라인, 모바일 등), DRTV, 방송모금, 이벤트 등을 통해 유입되는 채널별 기부분석과 이에 더해 향후 새로운 기부채널은 어떤 것이 떠오를지 등을 파악해 보기를 기대한다.

둘째, 잠재 기부자 확보를 위한 세대별 분석자료의 필요성,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생각과 지향, 기부 경향성을 분석하고 어떤 기부 참여방법을 선호하는지 알게 된다면 미래

기부 시장의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가 될 것이다.

신뢰성과 활용성 높은 자료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나눔지식이라 해서 비영리 단체나 유관 정부기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콜라보와 협업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를 희망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액후원분야 하나만 놓고 보자면 비영리 조직, 금융권, 세무사, 법률, 국세청, 전문컨설팅 기업 등 여러 조직과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인덱스 이다. 여기에 직접 현장에서 기부자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전문 모금가들을 연구 조사에 참여시킴으로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합의된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나눔과 기부분석 자료를 내놓는다면 전문성, 신뢰성, 유용성 모두 올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모금의 명분이자 대안적 사업제시를 할 수 있는 복지분야 연구자료

‘아동권리지수’, ‘한국아동의 삶의 질’ 연구처럼 아동복지지표를 발표하는 것은 비단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들의 행복감, 권리지수를 생활 시간이나 행복감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국제적인 비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아동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자료의 유용성의 증명은 정부기관 입법, 비영리 조직 사업반영 등 한국아동 국내사업에 얼마만큼 활용하는 가에 있다. 최근 기부자들은 더욱 많은 정보와 분석을 통해 기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의 기부금의 효과와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변화의 포인트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지표를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워크샵이나 공청회 등 다양한 지식토론장으로 연결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데 끊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눔지식들이 한곳에 모이는 아카이브가 마련되어 관련분야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기부자와 관심있는 모두가 펼쳐 볼 수 있게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를 기대 한다.

끝.



제3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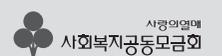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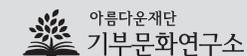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기관소개

아름다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끌어가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둡니다. 또,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며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비전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 행동 비전으로 “나눔의 생활화”를 함께 추구합니다.

미션

시민공익활동을 키워가는 창의적 서포터재단

공익활동의 지속가능 모델 인큐베이팅

전통적 자선활동을 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모델 개발을 추구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전제로 비전을 함께 실현할 단체를 발굴합니다. 더 나아가 단체의 설립과 사업, 자립을 지원합니다.

행동하는 시민기부문화의 확산자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기부자·지원자), 기업, 단체, 정부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올바른 나눔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110-035

전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트위터 @beautifulfund

페이스북 / beautifulfund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어린이가 혼자 그리는 그림은 꿈이지만,
어린이와 우리가 함께 그리는 그림은 미래가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전문성

어린이재단은 국내외 아동을 위하여 생존지원, 보호지원, 발달지원, 권리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성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재단만의 특화되고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최대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투명성

어린이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과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투명한 살림을 책임지는 관련 공직자 및 전문가들이 믿고 선택하는 신뢰 받는 기관입니다.

역사성

1948년 CCF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69년간 세상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어린이재단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해 온 뿌리 깊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국제성

세계 11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 어린이재단 연맹(Childfund Alliance)의 회원기관으로서 어린이재단은 세계 60 여개국(2016년 기준)의 아동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서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상관 없이 한결같은 인류애를 실천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표 나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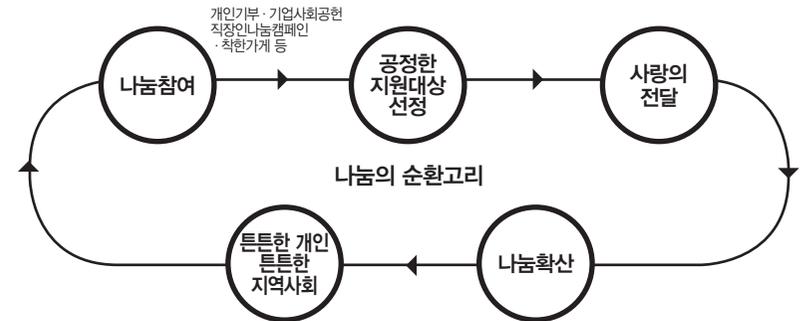
미션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빈곤, 질병,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최고의 모금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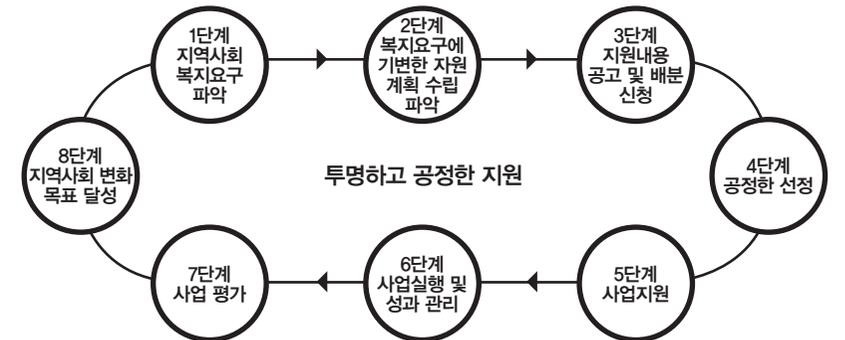
핵심 가치 인간존중, 윤리성, 열정, 헌신, 도전정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Fundraising)



배분(Allocation)



 본 공동기획포럼의 자료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https://research.beautifulfund.org/>) > 나눔지식 > 자료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http://www.childfund.or.kr>) > 아동복지연구소 > 자료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 > 연구 > 연구자료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인 박종문

편집인 장윤주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 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

전 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